2016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16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 국립중앙도서관 [편
].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6
p. ; cm

ISBN 979-11-5687-316-7 93020 : 비매품

도서관[圖書館]
우수 사례[優秀事例]

020-KDC6
020-DDC23 CIP2016028120

목 차

현장사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 수 상

기억에 향기를 담는다 –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례
강근영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 1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연구
이지은 (대구 동구 신천도서관) ····· 31

시간과 공간을 넘어 캠퍼스 전역으로 24시간 확대하는 열린 도서관 서비스
홍선표 · 이경문 · 이문형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55

지역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도서관 기능 확대: 〈경기도 메모리〉를 중심으로
송재술 · 신정아 · 김대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87

논 문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접근성 제고를 통한 공공도서관 이용 증진 방안: 유동인구DB를 중심으로
김정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121

현장사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 수 상

기억에 향기를 담는다

-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례

: 영종도서관 향토/지역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중심으로

강 근 영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목 차

Ⅰ. 사업 배경

Ⅱ. 사업 운영방향 및 목표

Ⅲ. 영종지역의 특수성

1. 개발 이전 역사적 특수성
2. 개발 이후의 지역사회 변화

Ⅳ. 영종도서관 향토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

1. 제1단계 – 도입 : 지역인사 간담회 및 강연회
2. 제2단계 – 홍보
3. 제3단계 – 지역 내 협력망 구축
4. 제4단계 – 자료수집 및 관리
5. 제5단계 – 수집된 자료의 활용

Ⅴ. 결과 및 제언

요 약

영종도서관은 2009년 3월 15일에 개관을 하여, 올해 개관 7주년을 맞았다. 개관 초기, 영종도서관은 영종도에서는 유일한 공공도서관이었다. 당시 문화기반시설이 적었던 영종도에서 영종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기대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영종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고 개관 5주년이 되던 2014년, 획일화된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종도의 역사적인 기억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점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때마침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4~2018)에서도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 확대방안의 하나로 지역의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축적 및 창조활동 지원을 제시하고 있었고, 영종도서관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영종지역의 변천사를 기록하여 지역 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영종도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을 기획·운영하기로 한다.

- 사 업 명 : 영종도서관 특화사업 향토/지역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
- 목　　적 : 향토/지역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사를 수집, 기록하여 급변하는 영종도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함
- 내　　용 : – 영종도 관련 자료 수집 및 생성
  – 수집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관리 작업
  – 그 외 공모전, 전시 등 향토/지역자료 수집 관련 문화행사 운영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으며, 또한 이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향토/지역자료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지역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존재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종도서관은 본 논문을 통해 지역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상기시켜,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Ⅰ. 사업배경

향토/지역자료는 지역 특징을 반영한 자료로서, 특정지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를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한국 도서관 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케 함으로써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 하에, 그 지역의 공공간행물과 향토자료 및 그 지역에 관계되는 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한다'는 자료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지역과 관계된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이 자료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노영희, 강정아(2014)의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향토문화콘텐츠 제공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적합성 및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시 효과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표와 같다.

〈표 1〉 향토문화콘텐츠 제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적합성(중복응답)

항목	빈도	비율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다	34	79.1%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적합	19	44.2%
향토문화콘텐츠를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적합	24	55.8%
향토문화콘텐츠를 활용하기에 적합	23	53.5%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용이	6	14.0%
향토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에 적합	8	18.6%

〈표 2〉 공공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제공시 효과(중복응답)

항목	빈도	비율
공공도서관의 위상강화	10	23.3%
세계유일의 자원 확보 및 보존효과	9	20.9%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강화	36	83.7%
연구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료 제공	20	46.5%
향토자원 사업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11	25.6%
지역의 역사성 보존	35	81.4%
공공도서관의 역할확대에 기여	20	46.5%
도서관의 존재감 향상	14	32.6%

표에서 보다시피 공공도서관이 여타의 다른 기관보다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과 도서관이 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는 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향토/지역자료의 수집 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지식 및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역의 역사성 보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영종도서관은 이렇게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영종도서관이 위치한 영종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영종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되었다. 그리

하여 개관 5주년이 되던 2014년, 영종도서관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영종지역의 변천사를 기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이로 하여금 애향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영종도 향토/지역자료 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Ⅱ. 사업운영 방향 및 목표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을 위해 영종도서관에서는 영종도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영종도서관은 아래와 같이 사업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영종지역의 변화사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기록하여 급변하는 영종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둘째,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 주민, 그리고 그 외 자료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접근성 확대에 노력한다.

셋째, 자료의 수집・정리・제공 뿐 만 아니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공모전, 전시 등)의 개발 및 운영으로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업의 확장성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이러한 향토/지역자료의 수집・정리・활용 등의 과정을 통해 영종도 내 대표 향토/지역자료 수집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한다.

영종도서관은 위의 4가지 운영방향 및 목표 아래 약 3년간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을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역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영종지역의 특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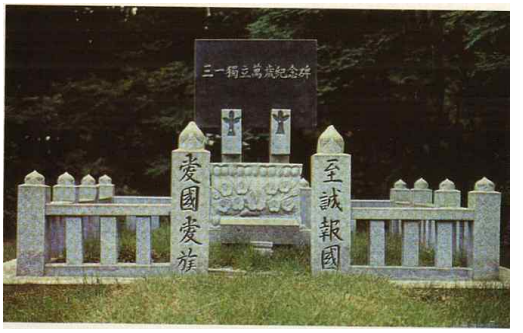
영종도는 일제 강점기인 1940년에 여러 섬을 간척하여 만든 섬으로, 원래 이름은 제비가 많은 섬이라 하여 '자연도'라 불렸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만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삼목도 사이를 간척해서 현재의 영종도가 되었다.

이렇듯 영종도의 역사는 간척되기 이전 영종도, 삼목도, 용유도 각각의 섬에 대한 것과 간척된 이후의 역사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발 이전 역사적 특수성

간척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영종도 주위의 용유도, 삼목도, 무의도는 영종도와 수시로 오갈 수 있는 동일 생활권이었다. 그리고 영종도의 주요한 생업 수단은 영종도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기 전까지만 해도 염업(소금 제조업)이었다. 또한, 용유도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에서 이례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칠 만큼 항일 운동의 열기가 뜨거운 곳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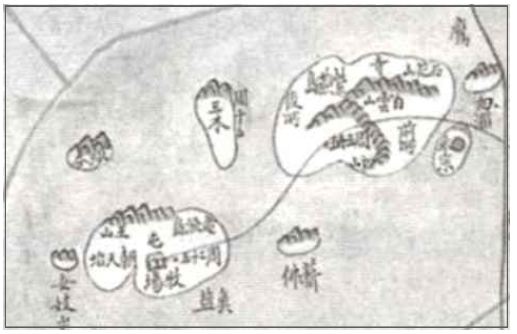
[그림 1] 영종도 염전



[그림 2] 용유도 3.1 독립만세 기념비

2. 개발 이후의 지역사회 변화

간척사업으로 재탄생된 영종도는 국제항공의 중심이자, 짧은 시간에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토지구획사업, 아파트 건설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활발한 발굴조사를 통해 신석기·청동기 시대 및 초기 백제시대의 역사를 설명해 줄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그림 3] 동여도에 나타난 영종, 삼목, 용유도

[그림 4] 간척지 표시

[그림 5] 현재 영종도 모습

[그림 6] 현재 영종도 모습

영종도서관이 위치한 영종지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3개의 섬이 간척사업을 통해 하나의 섬으로 변한 곳으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발전적 과정 속에서 옛 모습을 잃어가거나 새

로이 유입된 이주민과 향토민 사이에 이질감이 형성되고 지역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료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종도서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로 문제점을 풀어보고자 하였으며 영종도서관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이 기획되었다.

Ⅳ. 영종도서관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

우리는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앞두고, 이미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및 그 외 학술기사, 논문 등 많은 자료의 분석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기존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상의 한계점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향토/지역자료에 관련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으며, 전문 인력이 배치된 도서관 또한 적기 때문에 향토/지역자료에 대한 업무 추진과 운영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둘째, 향토/지역자료 구입 예산이 부족하며, 국비지원 이외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고가의 가치 있는 향토/지역자료의 구입과 행사 개최 등 운영에 한계가 있다.

셋째, 자료의 수집 면에서, 비도서 자료의 소장수가 도서자료 소장수에 비해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도서 자료의 소장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자료의 봉사 측면에서는 향토/지역자료 특성상 특별한 보존과 관리가 중시되는 자료가 많이 때문에 제한적인 관외대출과 웹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외대출의 경우, 일부 도서관에서 제한적으로 자료를 대출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 향토/지역자료의 봉사에 있어 중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웹을 통하여 향토/지역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도서관 또한 적은 수에 불과하다.

다섯째, 향토/지역자료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지역 관련 교과과정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이진민 2003)

영종도서관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총 5단계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수립하였고, 201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1단계	도입 : 지역 인사 간담회 및 강연회
제2단계	홍보
제3단계	지역 내 협력망 구축
제4단계	자료수집 및 관리
제5단계	수집된 자료의 활용

〈표 3〉 영종도서관 향토/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단계별 중장기 발전과제

1. 제1단계-도입: 지역인사 간담회 및 강연회

제1단계 도입단계에서는,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내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지역인사를 주축으로 한 간담회 및 영종도 역사에 대한 역사학자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가. 지역인사 간담회 개최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종도서관 내부 담당자가 지역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역 향토 사학자 및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지역출신 공무원, 영종도서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인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토/지역자료 수집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지역 내 향토/지역자료 수집 및 지역 아카이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지역인사 간담회를 통해 우리 모두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공감하였다. 그리고 영종도서관 내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의견 및 제안사항 등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때에 결정적인 힘이 되기도 하였다.

〈표 4〉 지역인사 간담회 참여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1	영종동 통장자율협의회	회 장	이 용 근
2	운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강 후 공
3	운서동 통장자율협의회	회 장	장 경 동
4	운서동 새마을 협의회	회 장	이 광 만
5	前 주민자치위원회	고 문	이 용 대
6	영종도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최 인 성
7	인천시의원	의 원	김 정 헌
8	영종진 역사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박 병 만
9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관장 및 직원 총 3인	

[그림 7] 지역인사 간담회 개최

나. 강연회

영종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영종도, 우리가 알아야 할 영종도'라는 주제로 역사학자(조우성)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영종도 지역의 재미있는 설화나 전설, 의미 있는 유적지나 유물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주제로 한 강연의 특성상 강연 내내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영종도 향토자료 수집 사업과 연계한 강연회 진행을 통해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의 홍보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지역 내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우리의 사업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그림 8] 강연회 진행 모습

2. 제2단계 - 홍보

앞 단계에서 진행되었던 지역인사 간담회 및 강연회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향토/지역자료의 수집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영종도서관은 사업 초창기, 홍보 부분에 모든 힘을 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보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 사업 홍보–홍보물, 기념품 제작 배포 및 홍보부스 운영

홍보를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각종 사업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기관 및 장소에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개막식 및 전국 도서관 대회 등 각종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다.

기본적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홍보를 통해 영종도서관이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을 진행하는 필요성과 목적을 지역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역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주변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9] 홍보물 관내 부착 모습

[그림 10] 기념품 제작

[그림 11] 사업 홍보부스 및 포스터세션 운영

나. 특별전시 운영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특별전시를 운영하였다. 인천 및 영종도 지역의 변모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이루어진 전시로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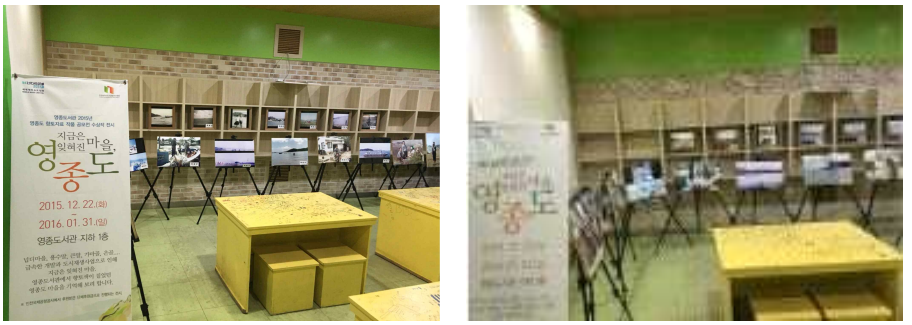
진행되었다. 특히나 '지금은 잊혀진 마을, 영종도'는 영종도서관 주관의 공모전 '영종도의 옛 모습을 찾습니다.'를 통해 수상한 작품 24점을 전시한 것으로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운영한 사업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두 전시 모두 전시 종료 후 영종도 관련 자료는 영종도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 〈온고지신〉으로 기증하여 수집하였다.

〈표 5〉 영종도서관 특별전시 운영 내용 및 결과

전시명	"해안선은 없다"	"지금은 잊혀진 마을, 영종도"
전시일자	2015. 2. 7.(토)~3. 20.(금)	2015. 12. 22.(화)~2016. 1. 31.(일)
전시작품	인천지역 해안선 사진 67점	영종도 향토자료 작품 공모전 수상작 24점
전시장소	영종도서관 1~3층 로비	영종도서관 지하 1층 휴게실
관람자 수	총2,016명(일평균 63명)	총1,830명(일평균 54명)

[그림 12] '해안선은 없다' 전시 운영



[그림 13] '지금은 잊혀진 마을, 영종도' 전시 운영

다. 보도자료

각종 매체(신문, 영상)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관내 지역뿐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도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알려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표 6〉 영종도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 신문 및 영상 매체 홍보

구분	보도일자		언론사	제목
1	2014년	7. 22.	파이낸스 투데이	인천 영종도서관, 〈온고시진〉 향토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시작
2		7. 22.	뉴스와이어	영종도서관, 옛 영종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 수집보관
3	2015년	3. 9.	국제뉴스	인천시 중구 영종도서관, 〈온고지신〉 운영
4		3. 9.	국민일보	영종도서관 '책의수도인천' 성공위해 〈온고지신〉 운영
5		3. 9.	시민일보	인천시 중구 영종도서관 옛 영종의 모습 찾자...〈온고지신〉 운영
6		3. 9.	아주경제	영종지역의 미래를 옛 영종의 모습에서 찾는다
7		3. 9.	아시아 뉴스통신	영종지역의 미래를 옛 영종의 모습에서 찾는다
8		3. 9.	불교공 뉴스	옛 영종의 모습에서 찾는다
9		3. 9.	일간투데이	영종도서관 영종지역 향토자료(도서 사진 등) 아카이브 구축 사업 온고지신
10		3. 9.	iBNNEWS	영종도서관, 영종지역 향토자료아카이브 구축사업 〈온고지신〉
11		3. 9.	인천in	영종도서관, 영종지역 향토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추진
12		3. 12.	인천시 인터넷방송	영종도서관 지역 향토자료 구축 〈온고지신〉 운영(영상)
13		11. 9.	아주경제	영종도의 옛 모습을 찾습니다, 향토자료 작품 공모전
14		11. 9.	국제뉴스	인천시, '영종도의 옛 모습을 찾습니다.'
15		11. 9.	불교공 뉴스	영종도의 옛 모습을 찾습니다.
16		11. 9.	아시아 뉴스 통신	영종도의 옛 모습을 찾습니다, 향토자료 작품 공모전
17		11. 9.	이뉴스 투데이	인천시, 향토기록자료 작품 공모
18		11. 9	시민일보	인천 영종도서관, 영종도 변천사 모아 역사 정체성 찾는다.
19	2016년	3. 14.	인천일보	[인천문화읽기]지역 특색 살린 도서관

3. 제3단계 - 지역 내 협력망 구축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기관에 대해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과, 지역문화원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관청이 34.9%, 협력하지 않음이 30.2%, 박물관과 다른 공공도서관이 각각 18.6%, 기록실 7.0%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한 협력기관으로 가장 선호하는 기관은 44.2%로 나타난 지역문화원인 것을 알 수 있으나, 30.2%가 협력하지 않음에 응답하여 실제 향토문화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영희, 강정아 2014)

〈표 7〉 향토문화 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기관(중복응답)

항목	빈도	비율
다른 공공도서관	8	18.6%
지역문화원	19	44.2%
박물관	8	18.6%
기록실	3	7.0%
행정관청	15	34.9%
협력하지 않음	13	30.2%
기타	8	18.6%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의 부족한 인력,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 내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종도서관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인력,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 내 협력기관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협력기관과의 협력내용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언급된 상호대차, 발간자료의 교환 등의 업무에서 나아가 기부금(예산) 확보라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 또한 얻을 수 있었다.

가. 자료 수집을 위한 지역 내 협력망 구축

영종도서관은 향토/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지역 내 협력기관을 모색하였고, 아래와 같이 총 5개 기관과 업무 협의를 거쳐 기관 내 자체 발간자료 및 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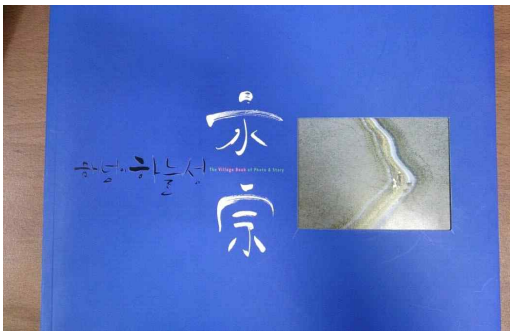
○ 인천대학교 인천학 연구원과 업무 협의
- 일 자 : 2015. 4. 10.
- 협의내용 : 영종도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기증
- 기증자료 : 인천학 연구총서, 인천학 자료총서 등 인천대학교 인천학 연구원 발간자료

○ 인천발전연구원과 업무 협의
- 일 자 : 2015. 4. 10.
- 협의내용 : 영종도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기증
- 기증자료 : 연구보고서 등 인천발전연구원 발간자료

○ LH 영종사업단과 업무 협의
- 일 자 : 2015. 7. 28.
- 협의내용 : 발간자료 기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운영 협의

○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업무 협의
- 일 자 : 2015. 8. 5.
- 협의내용 : 영종도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기증
- 기증자료 : 영종도 지역 개발 전경 모습 등 데이터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팀과 업무 협의
- 일 자 : 2015. 8. 12., 2016. 7. 14.
- 협의내용 : 영종도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공항공사 소장 자료 기증 협의



[그림 14] 기증도서 '영종하늘도시'

(2009년 발행/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발간)

나.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내 협력망 구축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담 인력의 부족, 향토/지역자료의 수집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 및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부족한 예산일 것이다. 영종도서관은 이러한 부분 역시 지역 내 협력망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앞서서 영종도서관은 사업 초기, 지역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영종도 내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 후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종도서관은 기부금 신청 과정을 통해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받아 2015년, 2016년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에 필요한 운영물품 구입, 공모전, 전시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였다.

[그림 15]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 프로그램

4. 제4단계-자료 수집 및 관리

제4단계는 자료의 수집 및 관리단계로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향토자료란 ‘도서관에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도서, 지도, 삽도 및 기타자료 일체로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관한 및 그 지역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신문, 잡지, 필사본, 시청각자료, 민속자료,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문서, 그 지방소재 기업체 및 단체의 간행물과 이들에 관한 자료”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영종도서관은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을 토대로 영종도 향토자료의 수집 유형 및 형태를 영종의 지역색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자료, 영종도와 관련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록 자료 등으로 규정・수집하고 있다.

가. 수집 자료 현황

영종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14년 6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6년 8월까지 총 111점 수집하였으며, 이용자 및 기관에서 기증받은 자료들이 총 96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종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수집한 자료도 2점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 환경, 사회, 통계, (섬)문화, 지리로 다양한 주제 분야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자료형태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8〉 영종도 향토/지역자료 수집 현황 (2016년 8월 기준)

수집방법	자료형태에 따른 수집 자료(점, 권)				총 수집 자료 (점/권)
	도서	사진	구술	기타	
구입	11	–	–	–	11
이용자 기증	–	49	–	–	49
기관 기증	46	–	–	1	47
영종도서관 자체적으로 자료 생성	–	–	2	2	4
합 계	57	49	2	3	111

나. 수집 방법

향토/지역자료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증 외에도 도서관 자체 예산을 통한 구입, 영종도서관 자체적으로 향토자료 생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 중에 있다.

1) 이용자 기증

영종도서관은 상시 홍보를 통해 꾸준히 향토/지역자료의 기증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연 1회 공모전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기증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영종도서관에서는 2015년, 2016년 2회에 걸쳐 '영종도의 옛 모습을 찾습니다'란 사업명으로 공모전이 진행되었고,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영종도 관련 자료, 사진 및 졸업앨

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시 혹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향토/지역자료를 기증해주는 이용자들에게는 기증자 예우로 기념품 증정 및 기증자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자료 기증을 독려하고 있다.

[그림 16] 향토/지역자료 공모전 운영 모습

[그림 17] 향토/지역자료 공모전 심사 모습

2) 기관 기증

기관 기증은 지역기관 및 영종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영종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기증 요청을 하고 있다. LH 영종사업단,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영종도 개발 당시 관련 업무를 주관하였던 기관 및 영종도 내 주요 기관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 다량의 사진, 영상, 구술 자료를 기증 받아 현재 자료를 선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영종도서

관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3) 도서관 자체 예산을 통한 구입

말 그대로 도서관 자체 예산을 통한 구입이다. 영종도서관은 관내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을 위한 예산 및 추후 발생한 기부금 등을 통해 향토/지역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도서구입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존의 온·오프라인의 서점 외에도 지역 내 향토출판사 및 헌책방을 방문하여 다량의 향토/지역 서적을 구입·수집하고 있다.

4) 영종도서관 자체적으로 생성

○ 구술채록

나도은(2012)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지역의 일상과 주민들의 삶의 궤적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당해 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기억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구술의 기록으로 담아내는 것은, 공식기록이 망실되고 지역을 서울의 변방으로 취급하여 지방사를 기록하지 않은 기록 부재의 사회에서 왜곡되고 조각나버린 공식 기록을 복원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

영종도서관은 계속된 개발로 인해 사라진 옛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안으로 '영종도와 관련한 이야기 구술채록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이는 영종도 향토/지역자료 수집에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구술채록은 구술자가 자신의 역사를 말로 풀어내는 작업으로 녹음기를 이용하여 음성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문자기록으로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러한 구술채록은 상시 구술채록과 지역 원로 구술 채록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시채록은 자료 수집을 위한 지역 주민 및 기관 방문 시 수집되는 자료이며, 지역 원로 구술채록은 지역 원로를 대상으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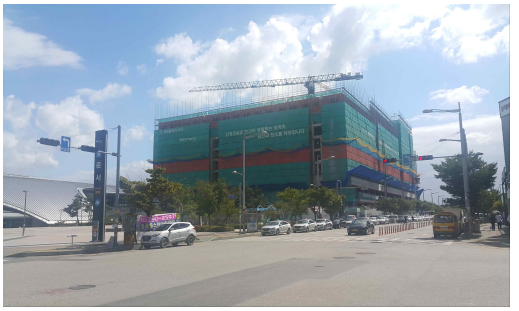
현재 영종도서관 자체적으로 생성·수집한 구술채록 자료로는 개발 이전 영종도의 주요한 생업 수단 중 하나였던 염전에 관한 것으로, 영종도에서 마지막 염부를 하셨던

분의 자택을 방문하여 염전에 관한 이야기 등을 구술로 담아낸 것이 있다.

[그림 18] '박병기' 前 염부장 구술채록(염전 복원터)

○ 사진채록

영종도는 현재까지도 시시각각 개발·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아파트 및 건물이 생겨나기도 하고,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야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영종도서관 향토/지역자료 수집 담당자는 수시로 지역 내 곳곳을 다니며 사진채록을 하고 있다. 향토/지역자료 수집이라고 하여 너무 과거의 자료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현재의 기록도 미래의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 초기부터 이 작업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9]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영종도의 모습

○ 프로그램을 통한 향토자료 생성

영종도서관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향토/지역자료를 생성하였다. 청소년들이 지역 매거진을 직접 제작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영종it–동네탐구생활' 또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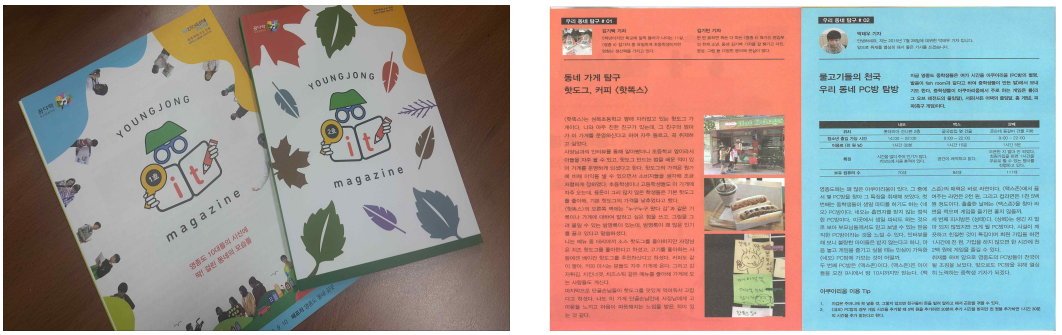
'영종it–동네탐구생활'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영종도서관은 2015년도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차오름 프로그램 일반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 비율이 높은 영종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영종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지역 역사 투어, 영종도에서 살면서 경험한 각자의 동네추억여행코스 기획, 30년 후 영종도를 상상하는 워크숍 등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발간한 지역 미디어 배포를 통해,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종지역자료 아카이빙 작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9〉 영종 it–동네탐구생활 세부 교육 내용

차시	영역	교육 방법
1	지역 이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타지역 사례 탐방
2–4	지역이해	현장 탐방 및 강의
5–10	지역 미디어 교육	미디어 기술 교육
11–14	지역 미디어 제작	지역 현장 취재 및 지역 미디어 제작
15	지역 미디어 배포	지역 소식지 배포
16	특별 상영회 및 전시회	'영종 it 제작과정 코멘터리' 상영회 및 전시회 개최

[그림 20] '내가 만드는 영종도 지도' 수업



[그림 21] 우리 동네 탐구생활 영종 It 매거진

이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영종도 내 향토/지역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생산할 예정이며, 영종도의 역사 속에서 기억되어질 소중한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 수집 자료 관리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영종도서관 향토자료 등록 지침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있다.

그리고 관내 자료실에 향토/지역자료 코너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수집된 모든 자료를 공개 운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오픈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토/지역자료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스런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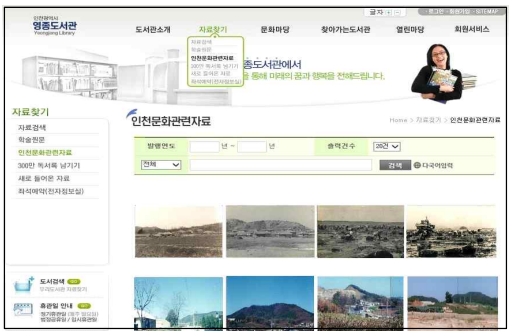
또한, 관내 홈페이지에서도 향토/지역자료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종도서관은 KORMARC(통합서지용)을 기준으로 영종도서관 향토자료 등록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그래서 이 등록 지침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향토/지역 자료 검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현재 영종도서관에서는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허가된 사진 및 지도 자료들을 [그림 24]처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지역과 관련한 사진 및 지도 자료들을 게재함으로서 이용

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확대된 향토/지역자료 정보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22] 영종도 향토자료 〈온고지신〉 코너 모습

[그림 23] 영종도서관 홈페이지 내 향토/지역자료 검색 코너



[그림 24] 향후 추가 운영될 영종도서관 홈페이지 내 향토/지역자료 코너

5. 제5단계 - 수집된 자료의 활용

제5단계 수집 자료 활용 단계는 수집된 향토/지역자료의 재가공 단계로서, 영종도서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혹은 타 기관의 협업 요청 등에 의해 기존의 수집된 자료 기반으로 지역자료의 개발, 전시 등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한다. 수집된 향토/지역자료를 밑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자료 및 정보를 재생산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사업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영종도서관에서도 그러한 열매를 맺고자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현재 영종도서관에서는 내부적으로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인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특화사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향토/지역자료의 수집 사업은 단기간 내 성과 혹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사업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도 아니다. 하지만 왜 영종도서관은 이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을 특화사업으로까지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일까?

1995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지역사회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향토/지역자료의 수집과 보존, 활용과 연구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현대화·산업화 되어가면서 점차 획일화된 문화 속에서 지방 고유의 향토문화 및 정신적 자산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급속한 개발과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영종도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사라져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기록·수집하여 보존·연구해야하는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었다.

이에 영종도서관은 다수가 외면하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향토/지역자료 수집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지금까지 3년째 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물론 향토/지역자료 수집 사업의 운영이 쉬운 것은 아니다. 부족한 인력 및 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향토/지역자료를 찾으러 다니는 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사진·도서 등의 자료를 공공을 위한 물품으로 기증하도록 요청하는 작업 등등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하지만 영종도서관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나아가 향토/지역자료의 산업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향상·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하게 이 사업을 진행·운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나도은, 2012.『기억의 구술을 통해 본 신도시 주민들의 공간과 일상에 대한 관계맺기와 실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비교문화협동과정 비교문화전공.

노영희, 강정아, 2014.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67–93.

이진민, 2003.『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영종·용유지 발간 위원회, 2008.『영종·영유지』. 인천: 서안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2016.『영종도서관 7년간의 성과 사례집』.

현장사례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연구

: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이 지 은

(대구 동구 신천도서관)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방법과 한계점
3.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

Ⅱ.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의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
1.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개요
2.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운영현황

Ⅲ.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
1.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운영주체에 대한 인식
3. 사서에게 미친 영향
4. 개선점

Ⅳ. 결 론

요 약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형태와 인력을 활용해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교육적 영향, 정서적 효과에 대한 연구만 주를 이루었을 뿐,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서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사례 연구를 살펴봐도 사서가 주 축이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외부 전문강사나 자원활동가에 의해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사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 소재의 동구 통합도서관에서 사서들이 4년간 직접 운영한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사서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용자는 사서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이용자들의 인터뷰 및 체험후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흥미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 읽어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 사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사서에 대한 홍보효과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사서들의 경우 “구연”이라는 전문적 기술과 교육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으나, 실제 이용자 대상의 인터뷰 결과 이용자들은 현재의 프로그

램 운영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오히려 전문가 보다 사서가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 사서들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자신의 업무적 역량강화와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효과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서가 직접 이야기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인력, 시설, 기타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실제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서와 이용자 모두에게 사서가 운영하는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사서들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여 사서의 역할과 도서관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지난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승리에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패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인공지능 또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실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가능한 직업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변화 속에서 “사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사서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서로봇 활용을 위한 환경조성연구(김봉근, 오바 코타로 2009)와 도서정리 로봇에 대한 연구(김아람, 이세한, 이상용 2016)가 실시

된 바 있다.

이처럼 사서의 업무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서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체 불가능한 고유 영역에 대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의 경우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실제 한국정보고용원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의 직업영역에서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적은 직업의 경우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많다고 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16). 한국정보고용원의 이와 같은 발표는 단손반복의 사무적 업무와 이용자커뮤니케이션 업무가 공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업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실시된 사서로봇 연구를 고려할 때, 실제 책을 꽂아 배가하는 작업, 자료를 정리하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는 업무는 사서들에게 강조될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도 사서를 “데스크에 앉아서 책을 대출, 반납해주는 사람”, “책 정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함에 따라 시민들과의 대면서비스가 중시되는 사서들의 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린이 서비스에서 사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성인들에 비해 어린이와 사서간의 정서교류가 중요시 되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서의 고유 서비스 대상 및 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특히 실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도서관 이용습관 형성과 책 읽는 즐거움을 전달해 주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 정보활용교육 등 책을 매개로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례발표와 효과성 검증 연구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 사서들의 인식과, 고민에 대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을 구성하는 3요소인 사서, 자료, 시설 중 사서는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이 도서관을 이용자하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피지기백전불태”라는 말도 있듯이 도서관에서 서비스 하는 활동들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때, 제대로 된 접근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와의 정서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현장의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사서들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한계점

이 연구는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현장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로 문헌연구와 현장 사서의 인터뷰를 함께 실시하였다.

실제 어린이사서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역할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대구통합도서관의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운영 사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6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10명의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도서관 소식지에 기고할 목적으로 모아둔 프로그램 참가후기도 참고자료로 함께 반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린이 이용자와 사서간 커뮤니케이션 및 정서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히 발생함에 따라 인터뷰를 통해 사서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생각과 고민 등 인식조사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의 거점이 되는 공공도서관인 안심도서관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4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천도서관의 경우 2016년 개관과 함께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사례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서들의 인터뷰 외 프로그램 참여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부가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의 과제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사례는 특정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3.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

가. 이론적 배경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형식의 하나로, 책을 읽어주거나 구연으로 들려주는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경험하게 하고 책의 맛을 느끼도록 하여 도서관의 어린이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방법이다(김종성 2011). 특히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을 하기위한 목적의 책 소개나 학습이 아닌,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다는 점에서 책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도록 함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평생 독자로서의 발판마련에 도움을 준다.

이야기 들려주기는 과거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구전동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이야기 들려주기가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윈즈(Hewins)가 1880년경 하트포드 공공도서관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혜경 2005).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과거에 비해 구연동화, 책 읽어주기, 스토리텔링 등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모든 도서관에서 보편적,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나.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의 사례

국내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이야기 들려주기는 스토리텔링, 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모가 들려주는 동화구연, 책 읽어주는 할머니 등 지역별로 운영방식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황금숙, 김수경 2012). 실제 안성시립도서관의 경우 2013년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자원봉사자,

외부강사가 힘을모아 공공도서관과 학교,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을 다니며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어린이 대상의 책 읽어주기는 공공도서관 내에서 주로 이루어 졌으며 3개 도서관에서 연간 139회 정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자 2014).

북 스타트 등 국내 어린이 전문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제천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어린이사서 활동인 "그림책 읽어주는 책언니(bookbuddy)"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5~7세 미취학 아동들의 언니, 오빠가 되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김소람, 김승민 2015).

또, 인천 율목도서관의 경우 "책 소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자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 읽어주기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하였다(김태민 2014).

이처럼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은 도서관에 따라 그 운영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별 사서인력 부족의 이유로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은 자원활동가와 외부 동화구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다. 이에 책 읽어주기는 공공도서관 내 사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의 업무부담과 인력부족에 따라 사서가 직접 고정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Ⅱ. A 도서관의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

1.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개요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는 마녀〉라는 이름으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의 거점이 되는 안심도서관이 개관하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통합도서관 내 소속된 공립작은도서관 3개관을 비롯하여 최근 개관한 신천도서관 역시 개관과 동시에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4년간 10여명의 사서가 500권 이상의 책을 주 1회 어린이 이용자에게 들려주었다.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며 평균 3권정도

의 책을 선정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자료실에 근무하는 사서 1명이 고정 담당자가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업무가 있거나 운영이 힘들 경우 관내에 있는 동료 사서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안심도서관 개관 초기 도서관 인근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등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꾸준한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대표 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운영현황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은 주 1회 이루어진다. 안심도서관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어린이자료실 내 제일 구석의 독립된 공간인 "올리볼리관"에서 진행된다. 1명의 사서가 3권 정도의 그림책을 읽으며, 약 20분~30분 정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서가 직접 마녀복장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시간이 되면 자료실 내에 있던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장기운영하고 있는 안심도서관의 경우 회당 10~15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개관한 신천도서관의 경우 회당 20여명의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 출처: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ansimlib>(2016. 6. 23)

[그림 1] 책 읽어주는 마녀 활동모습((좌)안심도서관, (우)신천도서관)

〈책 읽어주는 마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 이야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책 읽어주는 마녀〉를 운영하는 사서들의 책 선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와 재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은 사서들이 〈책 읽어주는 마녀〉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그림책 중 활용횟수가 많은 그림책 목록이다.

〈표 1〉 〈책 읽어주는 마녀〉 활용 주요 그림책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활용횟수
1	안 그러면	알리스 바시에	소금창고	7
2	지옥탕	손지희	책 읽는 곰	7
3	재채기 대장 재재	닐 게이먼	현북스	6
4	까만 토끼	필리파 레더스	RH코리아	5
5	달님을 빨아버린 우리엄마	사토 와키코	한림출판사	5
6	내가 먹어 줄게	후쿠베 아키히로	크레용하우스	4
7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박연철	시공주니어	4
8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앤서니 브라운	킨더랜드	4
9	코딱지	제랄딘 콜레 글	미래아이	4
10	그건 내 조끼야	나카에 요시오	비룡소	3
11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로렌 차일드	국민서관	3
12	다음엔 너야	에른스트 얀들	비룡소	3
13	밥 한그릇 뚝딱	이진경	상상박스	3
14	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	한솔수북	3
15	사자와 생쥐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	현북스	3
16	새똥전쟁	코럴 바스	리틀씨앤톡	3
17	색깔을 훔치는 마녀	이문영	비룡소	3
18	앗 그림책이 살아있어	리처드 번	푸른숲주니어	3
19	앤서니 브라운의 미술 연필	앤서니 브라운	웅진씽크빅	3
20	어둠은 무섭지 않아	엘라 버풋	대교출판	3
21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감자	오브리 데이비스	국민서관	3
22	오리야 토끼야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	아이맘	3
23	이슬이의 첫 심부름	쓰쓰이 요리코	한림출판사	3
24	진짜진짜 좋아해	후쿠자와 유미코	한림출판사	3
25	축구선수 윌리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3
26	토끼가 커졌어	정성훈	한솔수북	3

〈표 1〉을 살펴보면 사서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

거나,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책을 많이 읽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은 본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독서흥미유발과 이야기의 재미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대한 사서의 인식 연구를 위해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한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의 안심도서관과 신천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실제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운영한 사서들로 했으며 사례의 다양성을 위해 최단 2개월~최장 1년 4개월까지 참여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만, 인터뷰 대상자의 진솔한 생각을 듣기위해 소속과 대상자명은 익명 처리하였다.

〈표 2〉 인터뷰 대상자 목록

번호	인터뷰 대상자	현재 담당업무	비고 (사서경력)
1	사서 A	A도서관 수서업무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6개월)	경력 10년
2	사서 B	A도서관 종합자료실 운영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1년)	경력 9년
3	사서 C	A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운영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1년)	경력 4년
4	사서 D	A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운영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2개월)	경력 2년 2개월
5	사서 E	B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3년)	경력 5년
6	사서 F	A도서관 행정업무 담당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1년)	경력 5년
7	사서 G	A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1년 4개월)	경력 3년
8	사서 H	B도서관 수서업무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3개월)	경력 2년
9	사서 I	B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운영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2개월)	경력 2개월
10	사서 J	작은도서관 운영(기간제) (책 읽어주는 마녀 운영 : 2개월)	경력 2개월

1.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우선 사서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마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는 사서들이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가? 를 알아보기 위한 질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와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하나의 마케팅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
> (사서 C, 인터뷰 내용)

>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읽어주고, 읽도록 하는 것이 사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냥 당연한 일 같다. 예산은 투입되지 않지만, 그에 비해 이용자 참여도나 만족도가 크고, 윗사람(?)에게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가장 크다.
>
> (사서 E, 인터뷰 내용)

> 도서관에서 일을 해본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마녀복장을 하고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가 높고 덕분에 〈책 읽어주는 마녀〉를 하는 날 도서관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사서 J, 인터뷰 내용)

> 꼭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기 보다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마녀”처럼 흥미를 잘 유발할 수 있다면 더욱 좋긴 할 거구….
>
> (사서 A, 인터뷰 내용)

> 독서교육은 아니고, 그냥 애들한테 책을 친숙하게 해주고 재미붙여주고, 도서관을 친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도서관 오티를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해요..불특정다수 애들 대상의 프로그램이니까 첨에 오는 애들도 쭈뼛쭈뼛하다가 마녀를 보고는 익숙해져서 자주오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책을 공

부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돕는다는점,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서로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꼭꼭 필요합니다!

(사서 G, 인터뷰 내용)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의 사서 모두 어린이 대상의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며,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 및 도서관 홍보 등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이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어린이의 독서흥미 유발에 대한 효과는 앞선 이론적 배경 등에서 언급되었으며, 각종 독서교육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몇몇 사서들의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및 사서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명 등은 실제 경험의 결과 직원들이 인지하게 된 것으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서와 도서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운영주체에 대한 인식

앞선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 사례조사에서 도서관별 상황에 따라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앞서 살펴본 안성시립도서관의 경우 사서와 자원봉사자, 전문강사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천 기적의도서관 역시 운영자를 다양화 하여 책 언니 활동을 통해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인력부족의 상황 속에서 사서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도서관의 주 운영인력이 사서인 점을 고려할 때 사서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해 사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서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실제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의 운영주체에 대한 인식도를 질문해 보았다.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하

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전, 사서든, 자원봉사자든, 동화구연 전문가이든 누가 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서'라고 해서 모두 '어린이', '스토리텔링'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사서의 영역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치만 막 뒤섞어서 하는 것 보다는 사서, 자원봉사자, 전문강사가 각각 별도의 특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서들은 주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자나 강사들은 구연동화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강사들은 다른 활동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각각의 특성들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
> (사서 A, 인터뷰 내용)

> 사실 진짜로 이용자들이 좋아할만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전문강사나 동화구연에 능력이 있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강사들일 듯해요. 하지만 서툴러도 사서가 직접 이용자에게 책을 읽어주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용자의 반응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서 또는 비사서의 비중이 5:5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
> (사서 D, 인터뷰 내용)

>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와 전문강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확연히 다르니까 각자의 개성이 있겠지만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사서가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사서 G, 인터뷰 내용)

>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있어 꼭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자의 연령과 성향 등을 판단할 수 있고 좋은 책을 선정하는데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경험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운영비중은 검증된 사서나 전문강사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 (사서 B, 인터뷰 내용)

> 저는... 사서가 하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하는 것을 이용자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만 듣는 게 아니라 함께 온 엄마들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 쓰여요. 요즘 전문강사도 많은데... 비교되잖아요.
>
> (사서 F, 인터뷰 내용)

> 사서만 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ㅎㅎ 저는 사서 외 다른 분들은 책 이라는 콘텐츠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잘 할 수는 있지만, 도서관은 "책"이라는 콘텐츠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 **(사서 H, 인터뷰 내용)**

이상과 같이 실제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에 대한 생각은 사서들마다 차이가 있었다. 일부 사서들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부 사서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체는 사서라도 가능하며, 오히려 책 이라는 콘텐츠의 전문가인 사서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서들의 인식차이는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교육적 가치를 담느냐, 즐거움을 담느냐의 차이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아동이 영・유아기 때 책 읽어주기에 투입한 시간이 많을수록, 책을 읽어준 빈도가 잦을수록,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학교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책 읽어주기와 학교교과 성적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으며(이경아 2014), 소리 내어 읽어주기 활동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언어 이해력(듣기・읽기 이해력)이 비교집단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소리 내어 읽어주기 활동을 적용한 국어 학습이 아동의 언어이해력 증진에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음을 입증한 연구(송은경, 이성은 2006)도 있다.

이처럼 실제 이야기 들려주기는 독서, 유아교육, 언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 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연구가 어린이의 학습능력 및 인지・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사서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실제 프로그램의 참여자인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이야기 들려주기를 체험하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마녀활동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도서관 소식지

제작을 위해 받아둔 프로그램 참여후기 메시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저는 5살 아들과 함께 도서관에 마녀를 보러 와요. 안심도서관에 올 때도 있고, 작은 도서관에 갈 때도 있죠. 사서선생님들이 누군지는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저는 사서선생님들 보다는 동화구연하시는 분들이 읽어주시는 게 더 좋았어요. 그냥 전문가 같아서요. 그런데 실제 아이는 누가하던 다 좋아하더라구요. 아이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이는 그냥 마녀망토를 하고 책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용자 A, 인터뷰 내용)

동화구연 선생님들 보다 전 사서선생님들이 하는 게 더 좋던데요? 왜냐면 선생님들이랑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ㅎㅎ 어느 곳이든 그곳에 있는 사람과 친숙하고 익숙해 져야 자주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마녀할 때는 사서선생님이 하시는 게 좋아요. 도서관이랑 더 친숙하고 익숙한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애들도 사서선생님들 좋아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ㅎㅎ 어릴 때 학교선생님도 젊은 여자선생님이 좋잖아요? 우리 애들은 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이라 좋데요 ㅎㅎ

(이용자 B, 인터뷰 내용)

저는 마녀 선생님들 하시는 거 들으면 사서선생님이 하실 때가 더 재밌었어요. 동화구연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한번 씩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전래동화 같은것도 자주하시고 교훈을 주시며 끝을 맺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서선생님들은 골라주시는 책이 재밌어서 우리 애들이 재밌어 했어요. 전래동화나 좋은 책은 학교에서도 요즘 선생님들이 읽어주시고, 저도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대충 알고 있거든요. 엄마들끼리 만나도 한번 씩 이야기하고, 카페에 들어가 보면 리스트 같은 것도 있구 하니까요... 그런데 사서선생님은 기발한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서선생님이 하시는 게 더 좋았어요.

(이용자 C, 인터뷰 내용)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있던 사서선생님은 잘하셨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가급적이면 매주 수요일에 도서관에 와서 아이와 함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요. 애들이 선생님이 들려주신 책을 찾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이용자 D, 인터뷰 내용)

다른 도서관에 가니까 활동가? 같은 분들이 오시던데...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어요. 여기도 사서선생님들이 하는 건 좋은데 프로그램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 도서관에서는 "동지"라는 절기에 맞춰 책을 읽어주시고 팥죽도 한입씩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자 E, 인터뷰 내용)

책 읽기 마녀 덕분에 저희아이가 책 읽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도 많이많이 읽어주세요.

(이용자 F, 체험후기 내용)

매주 따뜻하고 재미있는 책 읽어주셔서 정말 잘 듣고 갑니다. 아이들이 책 마법사님도 기다리더라구요. 마녀, 마법사님 모두 너무 좋아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 G, 체험후기 내용)

매주 수요일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액션도 추가하며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목소리 크기 강약에 따라 집중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매주 수요일 책 읽어주는 마녀 우리아이는 즐겁게 기다린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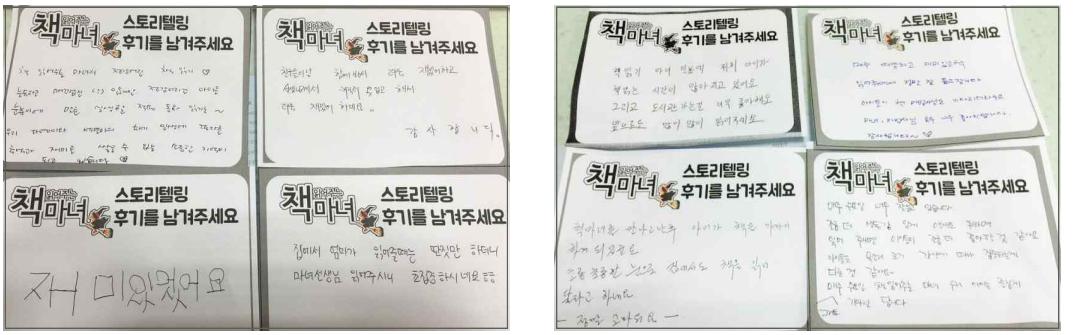
(이용자 H, 체험후기 내용)

책마녀를 만나고 난 후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군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에서도 책을 읽어달라고 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이용자 I, 체험후기 내용)

친구들이랑 함께 봐서 더욱 재미있어하고 선생님께서 캐릭터 옷 입고해서 더욱 재밌어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용자 J, 체험후기 내용)



[그림 2] 이용자가 작성한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참여후기 메시지

실제 이용자 인터뷰와 참여후기 메시지를 살펴본 결과 이용자들의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구연” 등 전문가의 활동을 요구하는 이용자도 있었으나, 보통의 강사들이 하는 전문적 동화구연보다는 사서들이 운영하는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이용자들은 반드시 전문적이고 교육적이라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에 사서들이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때 교육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서들은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의 본 취지가 어린이에게 이야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책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준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실제 인터뷰에서 응답한 “사서F”와 “사서H”의 이야기처럼 책이라는 매체의 전문가인 사서가 재미있는 책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사서와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 간의 교감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린이 이용자들이 책을 더 가깝게 느끼고, 도서관을 즐거운 곳으로 인지하게 된다면 사서로서 본연의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3. 사서에게 미친 영향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운영이 사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사서로서 또는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미친 영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점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실시하였다.

> 그림책을 선정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취향이 우선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용자들의 반응과 집중도를 고려한 그림책으로 선정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단순한 흥미위주의 도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감정이입과 공감 더 나아가 교훈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
> **(사서 B, 인터뷰 내용)**

> 내가 고른 책에 대해 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고,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대하게 되었다.
>
> **(사서 C, 인터뷰 내용)**

> 어른이 좋아서 고른 책과 실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같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는걸 느꼈어요.
>
> **(사서 D, 인터뷰 내용)**

>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그 특성에 맞는 책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
> **(사서 F, 인터뷰 내용)**

> 어린이자료실에 첫 부임을 받고 책마녀를 담당하면서 처음에는 마녀복장이 부끄럽고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 같아서 적응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뒤 메르스가 퍼져서 책마녀를 중단하게 되었죠. 대상인원이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 공지가 잘 안 되어있을 때였는데 프로그램에 자주 오는 아이인줄도 몰랐던 4살 아이가 왜 책마녀 하지 안하냐고 나를 쳐다보며 "마녀 선생님은 있는데 왜 안해요?"라고 할머니에게 묻는 데 '누가 이런 사태에 책마녀를 들으러 오겠어?'하는 안일한 마음을 다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아이 외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책마녀를 다시 잘 이끌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고, 이후 좀 더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프로그램을 애착있게 꾸려나가게 되었죠.

어린이자료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조용히해라, 뛰지말라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였거든요? 하지만 책 마녀를 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랑 부모님과 함게 소통하면서 많이 웃게 되었고 근무 중 가장 즐거운 힐링타임으로 바뀌었어요.

(사서 G, 인터뷰 내용)

제가 지금 수서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녀를 했던 경험이 아동장서를 구입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장서에 대한 출판사와 그 흐름을 파악하고 반영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용자들과 교류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죠. 도, 책에 대한 흥미유발과 내용전달을 위해 사서로서 자기개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서 I, 인터뷰 내용)

매주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온 학생이 일기장에 〈책 읽어주는 마녀〉에 대해 썼다고 말해주는데 굉장히 뿌듯했던 적이 있어요. 또 많은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 마녀〉 시간에 찾아와서 서로 앞에서 보려고 하던 모습들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 시선에서 그림책을 바라볼 수 있고, 책을 고르면서 자료실에 있는 책을 한번 씩 살펴보면서 매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요. 내가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웃고 지루해 할 수 있어서 말 한마디, 시선 등에 신경 쓰게 되더라구요.

(사서 J, 인터뷰 내용)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매주 책을 읽어줄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사명감도 생겼어요~

(사서 K, 인터뷰 내용)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사서들의 업무에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공부하게 되고, 자기계발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사서

들의 역량강화에 어린이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었다. 또, 어린이 이용자들과의 교류와 피드백을 통해 이용자 대면서비스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려움, 스트레스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서들의 변화와 경험은 지금까지 도서관 어린이서비스 운영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지 못한 부분이다. 사실 이용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서의 만족도나 인식개선에 프로그램 업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4. 개선점

자신들의 처우나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 또,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사서 누구나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분장에 의해 실시하다보니... 어린이 자료실의 업무로만 느껴지고, 또,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니까 더 하기 싫어질 때도 있었어요.
>
> 예전에 책마녀를 하는데 엄마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읽어주세요...라고 후기를 남겨 둔걸 봤어요. 그때 멘붕상태의 충격이 커서... 그래서 그 뒤로 사실 책마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생기더라구요...
>
> **(사서 F, 인터뷰 내용)**

> 사서들끼리라도 서로 책에 대해서 또는, 마녀운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도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
> **(사서 E, 인터뷰 내용)**

> 그림책 교육?, 동화구연 교육? 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교육들이 좀 더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초보라 ㅎㅎ
>
> **(사서 L, 인터뷰 내용)**

인터뷰 결과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서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대다수의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사서들이 겪는 고충이기도 하다. 실제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에서는 이러한 어린이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습 및 실제 업무를 통한 경험으로 그 운영방법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훈련 및 각 지부 대표도서관의 사서직무교육을 통해 그림책 깊이읽기, 서평쓰기, 독서교실 등 어린이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교육들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연속적이지 않으며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 사서들이 업무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서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서간 업무교류, 업무동호회 등 소집단의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의 〈책 읽어주는 마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서들과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서들은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린이들이 책에 흥미를 느끼고 이야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사서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선정한 책이 대부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는 흥미위주의 그림책이었다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으며,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다만 사서들 중 일부가 교육적 역할과 동화구연이라는 전문적 활동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이에 운영주체가 사서여야 하는가? 혹은 전문가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사서가 직접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흥

미와 호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사서가 직접 운영해서 좋다는 평가도 있는 등 이용자들이 사서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사서들은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계발 및 업무역량 강화 등 부가적인 효과를 얻게 한다는 점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취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연구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경험을 통한 인식이며, 사서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서의 업무만족도와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사서와 참가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며 나아가 도서관의 역할과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보다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권하고 싶으나 실상 사서의 인력문제 및 현장교육의 부재 등 환경적 장벽이 놓여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도서관의 3요소 중 사서는 도서관 장서와 이용자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급격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사서는 대체 불가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홍보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면 사회 속에서 사서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잊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도서관과 사서는 적극적으로 도서관의 장서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어린이 서비스 속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의 운영이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서는 동화구연가도, 전문적인 교육활동가도 아니다. 그냥 “책”이라는 매체의 전문가이다.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고 재미있는 게 즐길 수 있는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들이 느끼도록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적인지, 가치있는 지의 판단은 사서의 몫이 아니라 이용자의 몫이다. 그러니 사서들은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서 사서들의 이야기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연스레 들려나오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소망해 본다.

▌참고문헌

공정자, 2014. 공공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활성화 방안. 『디지틀도서관』, 73: 18-21

김봉근, 오바 코타로, 2009. 사서로봇을 위한 정보구조화 공간과 환경지능 시스템. 『로봇학회 논문지』, 4(2): 147-154.

김소람, 김승민, 2015. 어린이사서 활동을 통한 도서관 현장 사례: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도서관. 『2015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 121-153.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김아람, 이세한, 이상용, 2016. 모바일 로봇 기반의 도서 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지능시스템 학회논문지』, 26(1): 9-15.

김종성, 2011. 『어린이서비스론』. 대구: 태일사.

김태민, 2014. 이제 들으면서 읽는다! 책 소리 서비스!: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서비스 사례. 『2014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 71-93.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대구 동구 통합도서관 블로그. 2016. [online] [cited 2016. 6. 23] 〈http://blog.naver.com/ansimlib〉

송은경, 이성은, 2006. 소리내어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언어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0(1): 21-36.

이경아, 2014. 『책 읽어주기 활동이 학교교과학습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정혜경, 2005. 『한국과 미국 공공도서관의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직업세계의 미래(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16. [online] [cited 2016. 6. 23] 〈http://www.keis.or.kr/user/bbs/ main/137/775/bbsDataView/32721.do〉

황금숙, 김수경, 2012.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제』. 서울: 조은글터.

현장사례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시간과 공간을 넘어 캠퍼스 전역으로 24시간 확대하는 열린 도서관 서비스

: 고려대학교 도서관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홍선표 · 이경문 · 이문형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목 차

Ⅰ. 서 론

Ⅱ. 〈RFID 자동화 시스템〉 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 목표
3. 사업 내용

Ⅲ. 〈간편대출서비스〉
1. 서비스 개요
2. 서비스 경과
3. 서비스 내용

Ⅳ. 2015학년도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 이용 현황
1. RFID 자동화 시스템 이용 현황
가. 자료 분석
나. 대출
다. 반납
2. 〈간편대출서비스〉 이용 현황
가. 자료 분석
나. 서비스 측면
다. 이용자 측면

Ⅴ.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의 효과
1. 이용자 만족도
2. 도서관 자료 이용

Ⅵ. 결 론

요 약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2014년에 “대출 및 반납의 편리성 극대화”를 목표로 〈RFID 자동화 시스템〉및 〈간편대출서비스〉사업을 착수하여 201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RFID 자동화 시스템〉구축 사업은 도서관이란 물리적 공간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대출·반납이 처리되도록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고려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성원 모두가 캠퍼스 전역에 설치된 RFID 자동화 장비를 통해 도서관 자료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24시간 캠퍼스 전역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시킨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간편대출서비스〉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RFID 자동화 장비와 연계함으로서 대출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 시켰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서관 운영시간과 무관하게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편리한 장소에서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5학년도 1년 동안,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가 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월별·신분별·기기별로 이용 현황 및 패턴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였으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 교무처와 도서관에서 각각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미 많은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대출 절차 간소와 및 체계적 장서관리를 위해 RFID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같이 캠퍼스 전체에 RFID 시스템을 구축

하고, 〈간편대출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출·반납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한 사례와 서비스 시행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 행태 및 반응을 면밀하게 추적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수행한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 사업 내용, 2015학년도 1년 동안의 이용 현황 분석, 대출량 변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요약하여, 본 자료를 통해 국내 도서관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Ⅰ. 서 론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은 "Books are for use"이다.

2015 KERIS 대학도서관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4년 1년 동안 전국 426개 대학도서관에서 1,555,157명의 이용자가 16,987,797책을 대출하였다. 연장[1] 책 수를 포함하면 연간 약 2천만 건 이상의 대출서비스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2] 결국 대학도서관에서 대출서비스는 가장 빈번한 서비스이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중심이 인쇄자원에서 전자자원으로 이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자자원 예산 증가→단행본 예산 부족→단행본 구입 축소→장서 구성의 양적·질적 저하→대출량 감소[3]"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1) 대출갱신(renewal transaction)과 동일한 의미로 "원래의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대출을 연장하는 것".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online] [Cited 2016.8.10.] <http://www.kla.kr>

2) Rinfo 학술정보통계시스템-대학도서관 통계-대출현황 . [online] [Cited 2016.8.10.] <http://www.rinfo.kr/stat/totSearch.do>

3) 2015 대학도서관장회의 자료집 <전자저널 "가격인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자자료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도서구입비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즉, 도서구입비는 증액되지 않는

이에 국내 많은 대학도서관은 대출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4]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대출 책수 및 기간 확대, 연장, 예약 등 대출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도 최근 5년간 대출 책수가 매년 약 7~8%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량 확대를 위해 저자초청 강연회 개최, 커피쿠폰 제공, 독후감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대출 및 반납의 편리성 극대화"를 목표로 2014년에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사업을 착수하여, 2015학년도부터 이용자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RFID 자동화 시스템〉 사업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대출·반납이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간편대출서비스〉는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2015학년도 1년 동안,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가 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월별·신분별·기기별로 이용 현황 및 패턴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였으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 교무처와 도서관에서 각각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론 많은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대출 절차 간소와 및 체계적 장서관리를 위해 RFID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같이 캠퍼스 전체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대출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출·반납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한 사례와 서비스 시행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 행태 및 반응을 면밀하게 추적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국내 도서관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상황에서 단행본 구입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단행본 구입비의 감소는 도서관에서의 신간 구입 도서량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는 도서관 대출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
[online] [Cited 2016.7.7.] <www.kucla.or.kr/modules/bbs/index.php?mode=download&code=electron>

4) "책 읽으면 상품 줍니다" 대학도서관 슬픈 이벤트. 2013. 『국민일보』. 6월 30일. [online][Cited 2016.7.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326050&code=11131100>

Ⅱ. 〈RFID 자동화 시스템〉사업

1. 사업 개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자료 이용의 편리성 증대 및 소장 자료의 체계적 관리, 나아가 도서관 열람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RFID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였다.

〈RFID 자동화 시스템〉 사업은 "RFID Tag 부착"(대출 가능한 단행본 1,630,000여 책)과 "RFID 자동화 장비 설치"(셀프대출반납기, 자동반납기, 스마트대출반납기 등) 로 크게 구분된다.

〈표 1〉 RFID Tag 부착 자료

구분	수량
중앙·과학 도서관 개가자료	826,287책
중앙·과학 도서관 폐가 및 보존자료	800,691책
계	1,626,978책

○ RFID Tag 부착 - 대출 가능한 단행본 163만 책에 대한 RFID Tag 부착

○ RFID 자동화 장비 설치 - RFID 기반의 이용자 편의 기기 및 기타 장비 도입
- 자동반납기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11개 단과대학 건물에 설치)
- 스마트대출반납기 (대학 내에서 통행이 가장 많은 4개 지역[5]에 설치)
- 셀프대출반납기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장 많은 7개 자료실에 설치)
- 기타 : 장서점검기, 도난방지기, RFID 태깅기 등

5) 사업 초기 총 3대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2015년 12월 의학도서관에서 <RFID 자동화 시스템>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대출반납기 1대를 증설하였음.

[그림 1] 자동반납기 및 스마트대출반납기 설치 위치

○ 사업기간 : 2014년 8월~12월 (5개월)

○ 사업경과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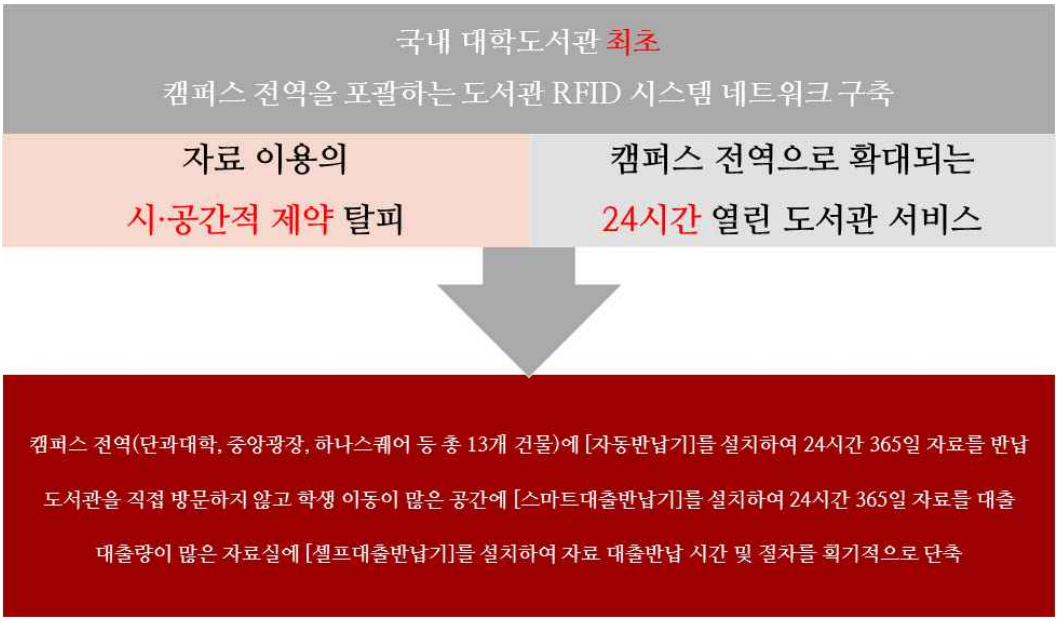
〈표 2〉 〈RFID 자동화 시스템〉사업 추진 일정

구분	일정	경과
준비 기간 (5개월)	2014년 04월	주요대학 RFID 시스템 벤치마킹
	2014년 05월	RFID Tag 주파수 선정 평가회
	2014년 05월~06월	RFID 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2014년 07월	RFID 시스템 사업자 선정
사업 기간 (5개월)	2014년 08월	RFID Tag 부착 착수
	2014년 09월~10월	RFID 관련 장비 설치
	2014년 10월~11월	RFID 대출·반납 시범시행, RFID 오픈식
	2014년 11월~12월	RFID 자동반납기, 스마트대출반납기 시범시행
	2014년 12월 31일	사업 종료

2. 사업 목표

○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 캠퍼스 전체를 포괄하는 도서관 RFID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탈피하여 캠퍼스 전역으로 확대되는 24시간 열린 도서관 서비스 구현



[그림 2] 고려대학교 도서관 〈RFID 자동화 시스템〉 사업 목표

3. 사업 내용

가. 중앙 · 과학도서관 소장, 대출 가능한 단행본에 RFID Tag 부착

고려대학교 도서관 Korea University Library	– 대출 가능한 단행본 163만 책에 부착 – 2014년 8월 : Tag 부착 착수(인력 60여 명) – 2014년 10월 : 개가자료 80만 책 부착 완료 – 2014년 12월 : 보존자료 83만 책 부착 완료

나. RFID기반 자동 대출·반납 시스템 구축

○ 자동반납기(11대)

- 11개 단과대학에 설치된 자동반납기를 통해 24시간 반납
- 용량 : 좌우 70책 (총 140여 책 반납)
- 설치위치(인문계) : 문과대학 외 6곳
- 설치위치(자연계) : 공과대학 외 5곳

○ 스마트대출반납기(4대)

- 대학 내에서 이용자 왕래가 많은 3개 장소에 설치한 스마트대출반납기를 통해 대출·반납
- 용량 : 400책 대출·반납 가능
- 설치위치(인문계) : 중앙도서관(로비), 중앙광장
- 설치위치(자연계) : 하나스퀘어

○ 셀프대출반납기 (7대)

– 이용이 가장 많은 7개 자료실에 설치된 셀프대출반납기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대출·반납
– 설치위치 : 중앙도서관 제2자료실 2대, 제3자료실 2대, 법학도서관 법학도서실 1대, 과학도서관 단행본실 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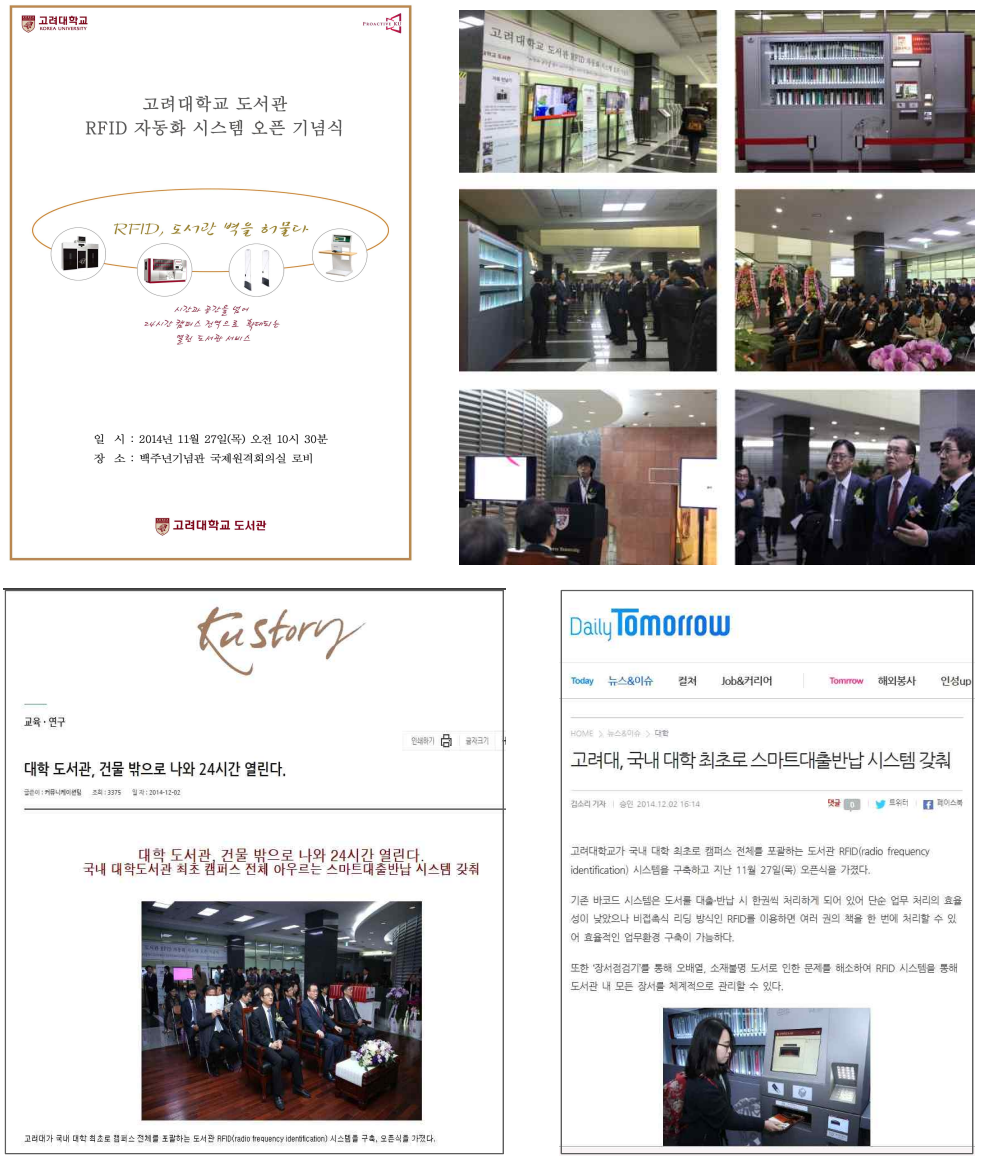
○ RFID 자동화 기기 대출·반납도서 운반용 전동카트 (3조)

– 자동반납기 및 스마트대출반납기에서 반납된 자료 수거 및 대출 신청 자료 배가를 위한 전동카트(커스터마이징)
– 설치위치 : 중앙도서관 2조, 과학도서관 1조

다. 〈RFID 자동화 시스템〉 오픈식 개최

〈RFID 자동화 시스템〉오픈식은 사업 완료 1개월 전인 2014년 11월에 고려대학교 주요 인사(총장 및 주요 보직교수, 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를 초정하여 사업 경과 보고 및 RFID 자동화 장비 시연회 등을 내용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RFID 자동화 시스템〉사업은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400여 책을 동시에 대출·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대출반납기"가 설치됨에 따라 교내외 언론사의 많은 취재가 있었다.



[그림 2] (시계방향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 오픈식 브로셔, 행사사진, 언론기사

오픈식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과 대학원총학생회장의 참석 및 축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RFID 자동화 시스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용자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및 대학원총학생회와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이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용자는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서비스 기획자로 〈RFID 자동화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서관 RFID 시스템을 홍보해 주었다.

[그림 3] (좌측부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RFID 자동화 시스템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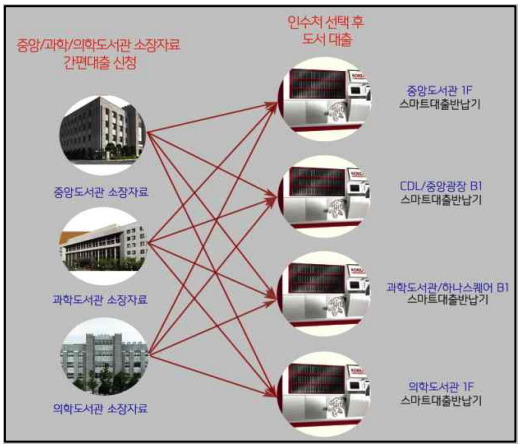
이와 같이 〈RFID 자동화 시스템〉오픈식은 도서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완료 보고회를 넘어, 서비스 주체인 도서관과 이용 주체인 이용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완성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었다.

Ⅲ. 〈간편대출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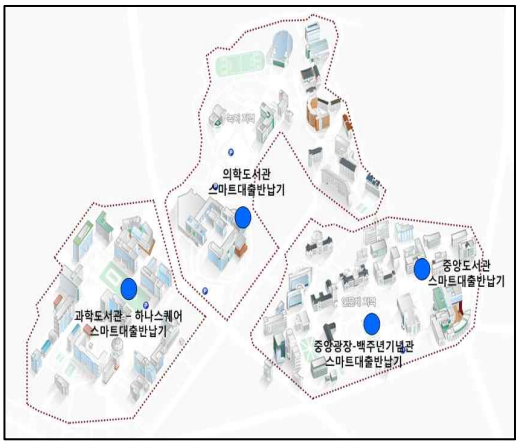
1. 서비스 개요

고려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이 있는 인문캠퍼스와 과학도서관이 있는 자연캠퍼스, 의학도서관이 있는 의학캠퍼스가 분리되어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캠퍼스를 왕래하여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상존하고 있다[6].

이에 도서관은 이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편리한 장소에서 대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간편대출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림 4] 〈간편대출서비스〉 구성도



[그림 5] 스마트대출반납기 위치

〈간편대출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SMS를 발송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 이용자는 자료의 소장 위치(중앙, 과학, 의학, 법학, 보존서고, 백주년기념관 등)나 도서관 운영시간과 무관하게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편리한 장소에서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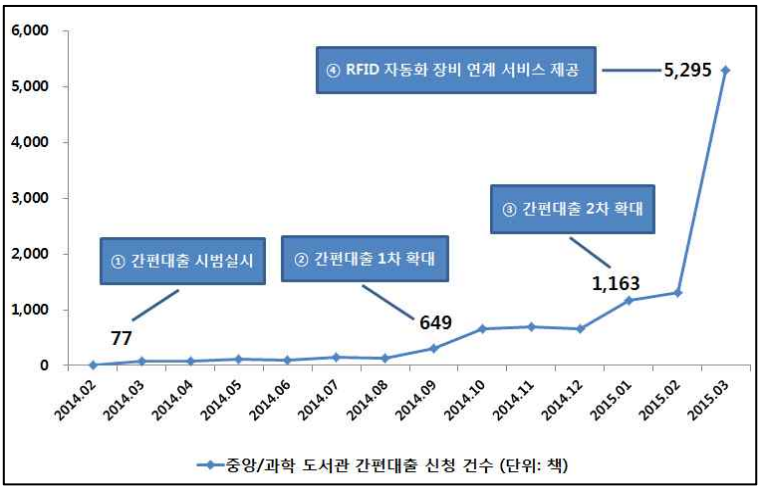
6)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세종학술정보원 자료는 분관대출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안암캠퍼스 내에 있는 중앙, 과학, 의학도서관 소장자료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야 이용이 가능한 상황임.

2. 서비스 경과

〈간편대출서비스〉는 2014년 3월, 교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월 대출 책수는 77책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후 2014년 9월 서비스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며 월 대출 책수가 649책으로 약 8배 증가하였다. 이어서 2015년 1월 학부생 포함 고려대학교 전체 구성원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면서 월 대출 책수가 1,163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5년 3월, 도서관 RFID 시스템과 연계하여 교내 4개 스마트대출반납기(인문캠퍼스 –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 자연캠퍼스 – 하나스퀘어 / 의학캠퍼스 – 의학도서관)를 통해 대출할 수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되는 책수는 월 5,295책으로 처음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3월 대비 약 70배가 증가하였다.

① 2014년 1월 – 〈간편대출서비스〉 시범실시 (서비스 대상 : 교원)
② 2014년 9월 – 서비스 대상 1차 확대 (서비스 대상 : 교원 + 대학원생)
③ 2015년 1월 – 서비스 대상 2차 확대 (서비스 대상 : 교원 + 대학원생 + 학부생)
④ 2015년 3월 – 〈RFID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 서비스 제공



[그림 6] 〈간편대출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량 변화

3. 서비스 내용

가. 이용 방법 (이용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자료를 검색한 후, 〈간편대출서비스〉를 의미하는 “B” 버튼을 클릭하면 수령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교내 4개 스마트대출반납기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SMS를 통해 도착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스마트대출반납기에서 대출한다.

[그림 7] 〈간편대출서비스〉 이용방법

나. 서비스 제공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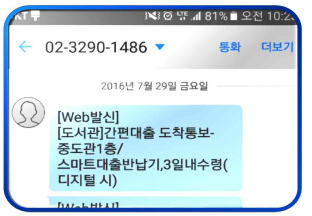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내역은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간편대출관리” 모듈에 데이터로 누적되며, 각 자료실에서 신청 리스트에 근거하여 자료를 색출하고 수령처별로 분류한다. 분류된 자료는 1일 2회 운행(9시, 14시)하는 분관 순환차량과 전동카트 등을 통해 캠퍼스별로 이송하여 스마트대출반납기에 탑재한다. 탑재 후, “간편대

출관리"모듈에서 자료 상태를 "대출대기"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도착통보(SMS/E-mail)가 발송된다.

① 자료수집

② 각 수령처로 자료이동

③ 자료 탑재



④ 도착통보

[그림 8] 〈간편대출서비스〉 처리과정

Ⅳ. 2015학년도 〈RFID 자동화 시스템〉및 〈간편대출서비스〉 이용 현황

1.〈RFID 자동화 시스템〉이용 현황

〈RFID 자동화 시스템〉이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의 자료 이용 패턴 및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5학년도 1년 동안 RFID 자동화 장비에 대한 관별, 신분별, 기기별 이용 현황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들 자료는 총 50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가. 자료 분석

○ 조사 대상 : RFID 시스템이 도입된 중앙 및 과학도서관 소장 자료

○ 조사 기간 : RFID 자동화 장비가 본격적으로 이용된 2015학년도 (2015.03~2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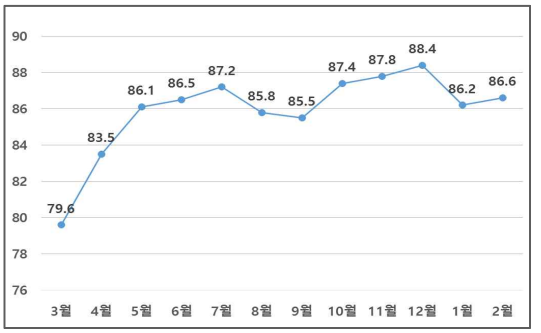
○ 조사 방법 : RFID 자동화 장비 이용률 및 신분별, 기기별 대출·반납 현황

나. 대출

1) 자동화장비 이용률

〈표 3〉 대출 자동화장비 이용률

구분	전체
대출 책수	402,252
자동화장비 대출 책수	344,688
자동화장비 이용률(%)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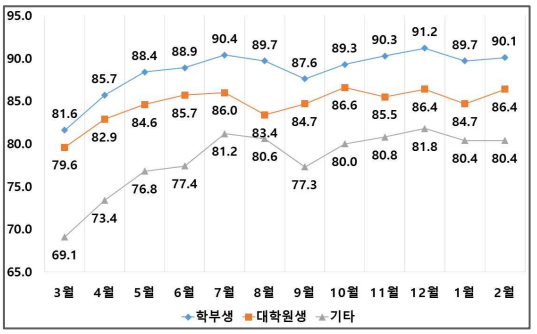


[그림 9] 월별 대출 자동화장비 이용률

2015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과학도서관에서 대출된 책은 총 402,252책[7]이며, 이중 RFID 자동화 장비인 셀프대출반납기(7대)와 스마트대출반납기(3대)로 대출된 책은 344,688책으로 전체 대출량의 85.7%가 RFID 자동화 장비를 통해 대출되었다. 전체 대출량 대비 RFID 자동화 장비를 통한 대출률은 3월 79.6%에서 점차 증가하여 12월 최고 88.4%를 기록하였으며, 월별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16학년도 말에는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7) 상호대차, 분관대출 등을 위해 대출 처리된 자료는 제외함.

2) 신분별 이용률



[그림 10] 월별 신분별 대출 자동화장비 이용률

〈표 4〉 신분별 대출 자동화장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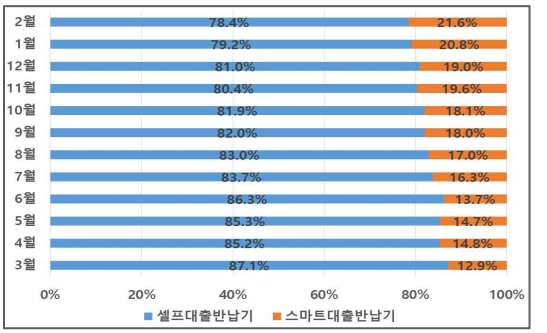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대출 책수	215,609	135,788	50,855
자동화장비 대출 책수	190,146	114,743	39,799
자동화장비 이용률(%)	88.2	84.5	78.3

신분별로 대출시 RFID 자동화 장비 이용률을 살펴보면 학부생 88.2%, 대학원생 84.5%, 기타신분[8] 78.3%로 학부생과 기타신분의 이용률은 약 10%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림 10]과 같이 기타신분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자동화 장비별 이용률

〈표 5〉 전체 대출 대비 이용률

구분		전체
	셀프 대출반납기	71.2%
	스마트 대출반납기	14.5%



[그림 11] 자동화장비별 대출 이용비율

도서관 각 자료실에 설치된 총 7대의 셀프대출반납기에서 2015학년도에 대출된 책

8) 교원, 직원, 및 평생교육원생, 기부자 등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신분

수는 286,468책으로 전체 대출량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중앙광장·하나스퀘어 등 총 3대가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대출반납기를 통해 대출된 책수는 58,220책으로 전체 대출량의 14.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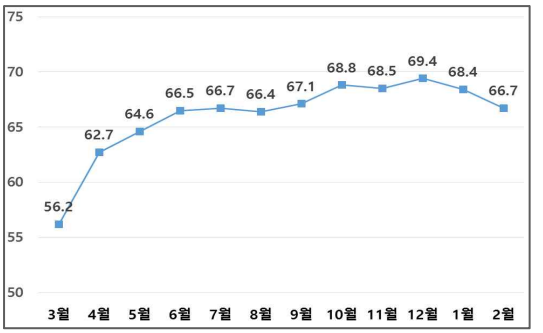
[그림 11]과 같이 RFID 자동화 장비를 통한 대출을 100%로 산정하고 셀프대출반납기와 스마트대출반납기의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스마트대출반납기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한 대출 책수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 반납

1) 자동화장비 이용률

〈표 6〉 월별 반납 자동화장비 이용률

구분	전체
반납 책수	401,485
자동화장비 반납 책수	265,013
자동화장비 이용비율(%)	66.0



[그림 12] 월별 반납 자동화장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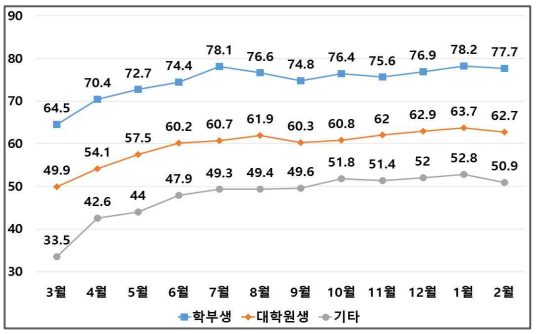
2015학년도에 반납된 책은 총 401,485책이며, 이중 셀프대출반납기(7대), 스마트대출반납기(3대), 자동반납기(11대)로 반납된 책은 265,013책으로 전체 반납량의 66% 수준이다.

월별로 RFID 자동화 장비를 통한 반납률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56.2%에서 2016년 2월에는 66.7%로 약 10.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16학년도 말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신분별 이용률

〈표 7〉 신분별 반납 자동화장비 이용률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반납 책수	215,434	134,510	51,541
자동화장비 반납 책수	159,921	80,305	24,787
자동화장비 이용비율(%)	74.2	59.7	48.1



[그림 13] 신분별 반납 자동화장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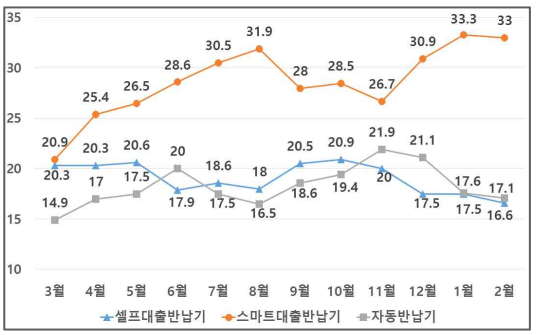
신분별로 반납시 RFID 자동화 장비 이용률을 살펴보면 학부생은 74.2%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대학원생은 59.7% 기타신분은 48.1%로, 학부생과 기타신분의 이용률은 26.1%의 차이를 보였다.

신분별로 RFID 자동화 장비를 통한 반납률을 월별로 살펴보면 학부생은 2015년 3월 64.5%에서 2016년 2월 77.7%로 약 13.2% 증가하였으며, 대학원생은 12.8% 증가, 기타신분은 17.4%가 증가하였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9월 이후, 세 신분 간 이용률의 차이는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신분별 이용률의 격차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장비별 이용률

〈표 8〉 장비별 반납 자동화장비 이용률

구분	반납책수	이용률
셀프 대출반납기	76,994	19.2%
스마트 대출반납기	113,754	28.3%
자동반납기	74,265	18.5%
데스크	136,472	34.0%



[그림 14] 장비별 반납 자동화장비 이용률

도서관 각 자료실에 설치된 7대의 셀프대출반납기를 통해 2015학년도에 반납된 책수는 76,994책으로 전체 반납량의 19.2%이다.

중앙도서관·중앙광장·하나스퀘어 등 총 3대가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대출반납기를 통해 같은 기간 반납된 책은 총 113,754책으로 전체 반납량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1개 단과대학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반납기를 통해 반납된 책수는 74,265책으로 전체 반납량의 18.5%로 조사되었다.

[그림 14]에서와 같이 2015년 12월을 기점으로 도서관 외부에 설치된 RFID 자동화 장비(스마트대출반납기, 자동반납기)를 통한 반납량이 도서관 내부(셀프대출반납기, 반납데스크)에서 반납되는 양보다 많아졌으며, 스마트대출반납기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도서관 외부에서 반납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 〈간편대출서비스〉 이용 현황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간편대출서비스〉가 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의 대출 패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5학년도 1년 동안의 서비스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상기 조사 자료의 양이 방대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 일부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료 분석

○ 조사 기간 : 2015학년도 (2015년 3월~201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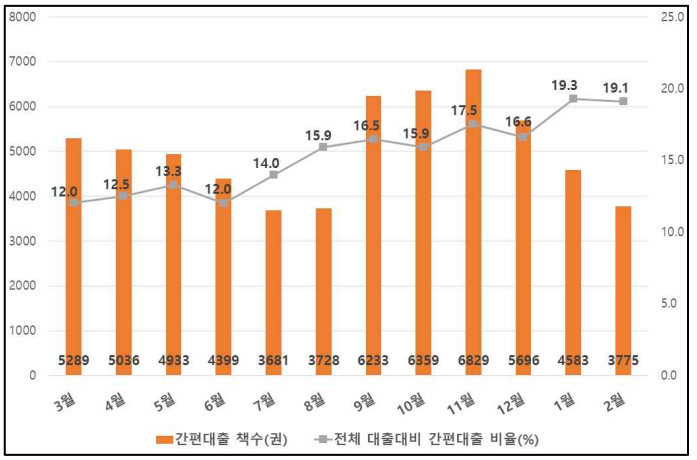
○ 조사 대상 : 고려대학교 소속 구성원의 간편대출 내역

○ 분석 자료 : 2015학년도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한 대출 리스트를 기반으로 함

○ 분석 방법

- 서비스 측면 : 전체 대출 대비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한 대출 비율
- 이용자 측면 : 신분별 〈간편대출서비스〉 이용 현황

나. 서비스 측면



[그림 15] 월별 간편대출서비스 책수 및 비율

2015학년도 1년 동안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한 대출 책수는 60,541책으로 같은 기간 도서관에서 대출된 402,252책의 15.1%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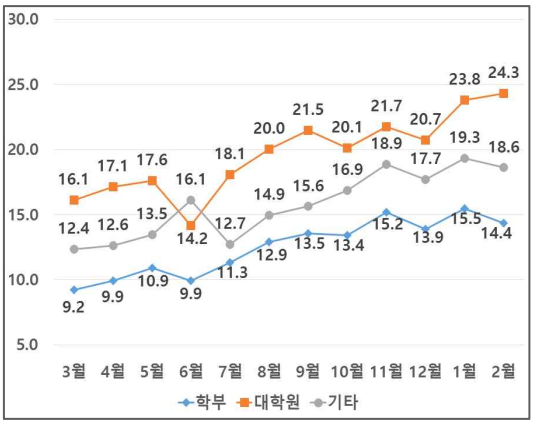
방학 기간 중에 일시 감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학기에는 〈간편대출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체 대출 책수에서 〈간편대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학년도 1년 동안의 증가 추세를 볼 때, 2016학년도에는 전체 대출량의 20% 이상이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방학기간 중에는 전체 대출 책수가 감소함에 따라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한 대출 책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대출에서 〈간편대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학기 중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학 중에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간편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이용자 측면

〈표 9〉 신분별 〈간편대출서비스〉 이용 비율

구분		전체
학 부 생	대출 책수	215,609
	간편대출 책수	26,362
	비율(%)	12.2
대학원생	대출 책수	135,788
	간편대출 책수	26,172
	비율(%)	19.3
기 타	대출 책수	50,855
	간편대출 책수	8,007
	비율(%)	15.7



[그림 16] 월별 간편대출 이용 비율

신분별 〈간편대출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생은 전체 대출 책수(215,609책)의 12.0%(26,362책), 대학원생은 전체 대출 책수(135,788책)의 19.3%(26,172책), 기타신분은 전체 대출 책수(50,855책)의 14.6%(8,007책)를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학부생보다 대학원생 및 기타신분의 〈간편대출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은 신분별 도서관 이용 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부생의 경우 자료 대출 외에도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등을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학원생 및 기타신분은 특정 자료의 대출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간편대출서비스〉가 이러한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대학원생 및 기타신분의 〈간편대출서비스〉 이용률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2016학년도에는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Ⅴ.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의 효과

1. 이용자 만족도

가. 도서관 주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이용자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격년으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포함하여 정보검색시스템, 도서관 직원의 자질 및 태도, 소장자료, 시설, 이용시간 등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망라하여 총 14개 문항[9]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새롭게 도입된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에 대한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총 16개 항목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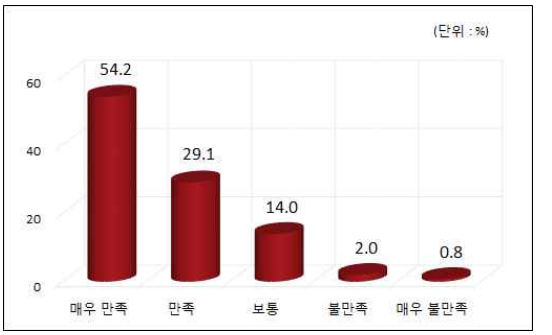
「2015학년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자료 중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서관 〈간편대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간편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안암 캠퍼스 이용자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970명의 응답자 중 10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한 960명의 응답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10〉 〈간편대출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 9번-간편대출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만족	520	54.2
만족	279	29.1
보통	134	14.0
불만족	19	2.0
매우불만족	8	0.8



[그림 17] 〈간편대출서비스〉 만족도

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2005-7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이용자 만족도 측정 평가지표 15개 문항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적합하게 수정 · 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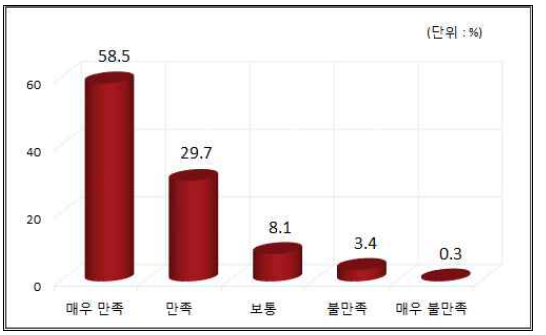
응답자의 과반을 상회하는 54.2%(520명)가 “매우만족”을 선택하였고,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한 “전반적 만족”(83.3%)이 “전반적 불만족”(2.8%)보다 약 30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간편대출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도서관 〈RFID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RFID 기반의 이용자 편의 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암 캠퍼스 이용자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970명의 응답자 중 18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한 95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11〉 RFID 자동화 시스템 만족도

조사항목 13번-RFID 자동화 시스템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만족	557	58.5
만족	283	29.7
보통	77	8.1
불만족	32	3.4
매우불만족	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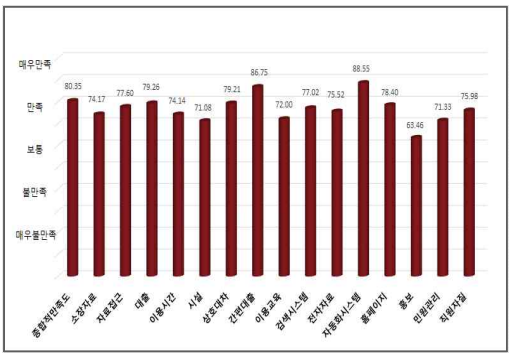


[그림 18] RFID 자동화 시스템 만족도

응답자의 58.5%(557명)가 “매우만족”을 선택하였고,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한 “전반적 만족”(88.2%)이 “전반적 불만족”(3.7%)보다 약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RFID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에서 실시한 「2015학년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전체 평점[10] 평균은 76.5점이었으며, 이중 〈RFID 자동화 시스템〉이 88.55점으로 전체 16개 항목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간편대출서비스〉가 86.75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도서관은 각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100점(매우만족), 80점(만족), 60점(보통), 40점(불만족), 20점(매우불만족) 이상 5단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19] 만족도 조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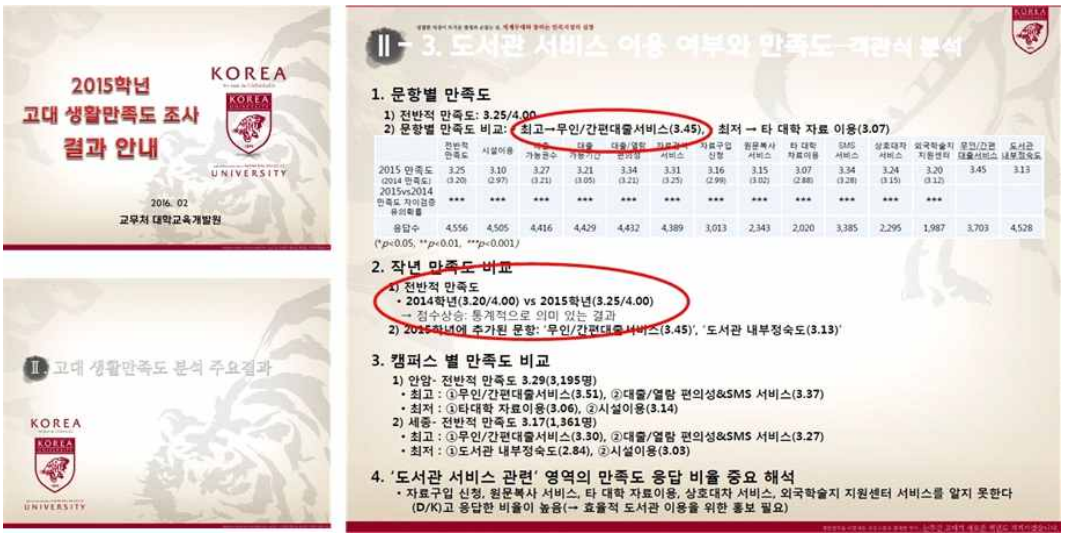
[그림 20] 교내 언론 홍보기사

나. 교무처 주관 고대 생활만족도 조사

고려대학교는 도서관과 별도로 교무처 주관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고대생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공표하고 있다.

교무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5학년 고대생활 만족도 조사」는 〈도서관 서비스〉 부분을 비롯하여 〈수업 및 교육과정〉, 〈강의 환경〉 등 8개 부분, 총 87개 항목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며 학부생 4,636명이 참가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 서비스〉 부분 14개 항목 중, "무인/간편대출서비스" 항목의 만족도가 3.45점으로 「고대생활 만족도 조사」 전체 87개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도서관 서비스〉부분 종합 만족도 역시 "전년대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이 있었다고 발표되었다. 〈도서관 서비스〉부분 14개 항목 중, 2015년에 신설된 "무인/간편대출서비스"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13항목의 만족도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무인/간편대출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도서관 서비스〉부분의 종합 만족도를 제고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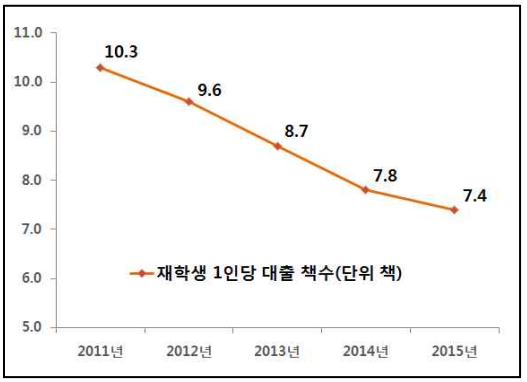


[그림 21] 고려대학교 교무처 주관 2015학년 고대 생활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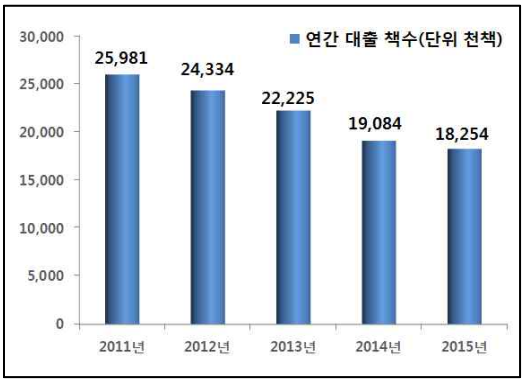
이상에서와 같이 도서관과 교무처에서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은 이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일례로 도서관에서 2008년부터 실시한 총 4회의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중에서 88.55점(간편대출서비스)과 86.75점(RFID 자동화 시스템)은 역대 항목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로서, 그 결과에 대해 도서관은 매우 고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림 21]과 같이 교내 언론사에서도 이를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2. 도서관 자료 이용

국내 대학도서관의 대출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학생 1인당 대출 책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KERIS 대학도서관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5년 국내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대출 책수와 전체 대학도서관의 총 대출 책수는 2011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국내 대학 재학생 1인당 대출 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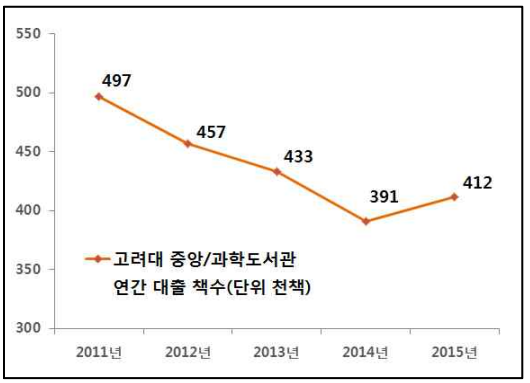


[그림 23] 국내 대학도서관 연간 대출 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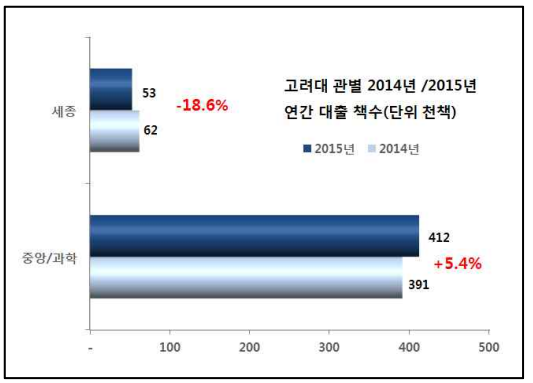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도서관 역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출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대비 2014년 대출량은 약 7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1년 605,894책, 2012년 555,721책, 2013년 478,732책, 2014년 476,329책).

그러나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를 실시한 2015년 대출 책수를 살펴보면 매우 이례적으로 2014년 대비 약 0.5%가 증가한 478,799책이 대출되었다. 특히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를 실시한 중앙도서관과 과학도서관에 한정하여 대출량을 살펴보면, 2011년 496,756책, 2012년 457,221책, 2013년 421,876책, 2014년 391,149책으로 매년 약 8%씩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412,318책으로 전년대비 약 5.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 25]과 같이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를 실시한 중앙·과학도서관과 이를 실시하지 않은 세종학술정보원의 2014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 대출량을 비교하면, 중앙도서관과 과학도서관은 5,4%가 증가한 반면 세종학술정보원은 18.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 고려대 중앙/과학 연간 대출 책수



[그림 25] 고려대 관별 연간 대출 책수

2015년에 도서관의 대출 책수나 기간, 이용자의 수, 대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 대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대출량이 증가한 것은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자료에 대한 대출 · 반납의 편리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서비스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를 실시한 중앙 · 과학도서관과 실시하지 않은 세종학술정보원의 대출 통계를 비교하면 이들 시스템과 서비스가 대출량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결국 전자자원의 증가, 모바일 기기의 이용 증가, 취업 준비를 위한 독서량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내 대학도서관의 대출량 감소가 일반적 추세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별 도서관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창의적 방법으로 대출 · 반납의 편의성을 확대하면 대출량은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Ⅵ. 결 론

Michael Gorman의 “Five new laws of Librarianship”[11] 중 제3법칙은 “Use technology intelligently to enhance service”이다.

도서관 서비스는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방향으로 확장,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구독·소장하고 있는 전자자원이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쇄자원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도서관 운영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대출·반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구축되면 좋을 것이다.

물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증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이용률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도서관이 추구해야 하는 서비스 증진 방향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자료를 통해 소개한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캠퍼스 전역으로 24시간 확대하는 열린 도서관 서비스 구현” 역시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인쇄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한 일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2014학년도에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퍼스 전체를 포괄하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대출하는 〈간편대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용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캠퍼스 전체에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반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도서관은 대출·반납 서비스를 도서관이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캠퍼스 전역으로 확대시켰다.

2015학년도 1년 동안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량의 85.7%, 반납량의 66.0%가 RFID 장비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전체 대출 책수의 15%가 〈간편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되어,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학년도 하반기에 대학과 도서관이 각각 실시한 이용자

11) Gorman, M. 1995. “Five new laws of Librarianship”. American Libraries, 26(8): 784-785.

만족도 조사 결과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매년 감소하던 대출 책수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학년도 〈RFID 자동화 시스템〉과 〈간편대출서비스〉이용 현황 및 월별 증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16학년도 말에는 전체 대출의 90%, 반납의 70%가 RFID 자동화 장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간편대출서비스〉 역시 전체 대출 책수의 약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동화 장비를 통한 대출·반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데스크 인력(근로학생)의 약 70%를 감축할 수 있었으며, 감축된 인원을 〈RFID 자동화 시스템〉 및 〈간편대출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캠퍼스 전체를 순회하며 반납 자료 회수 및 대출 신청 자료 배치를 초기에 1일 1회에서 1일 2회(시험기간에는 1일 3회)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학년도 초기에는 중앙도서관과 과학도서관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2015년 12월에 의학도서관이 합류하여 "안암캠퍼스" 전체로 확장되었으며, 향후 세종캠퍼스의 세종학술정보원으로 확대되면 고려대학교 구성원은 안암, 세종캠퍼스와 무관하게 모든 도서관(중앙, 과학, 법학, 의학, 세종)의 자료를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많은 대학도서관이 RFID사업을 수행하였지만,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사례와 같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캠퍼스 전체로 24시간 대출·반납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시행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자 반응을 추적 조사하여 편의성 및 효과를 확인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차별성에 본 자료의 의의를 두며 이를 국내 도서관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현장사례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지역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도서관 기능 확대

: 〈경기도 메모리〉를 중심으로

송재술, 신정아, 김대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목 차

Ⅰ. 서 론
1. 〈경기도 메모리〉란?
2. 추진배경
3. 추진방향

Ⅱ. 추진체계 및 경과
1. 추진체계
2. 추진경과

Ⅲ. 주요 서비스 소개
1.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 개요
2. 서비스 내용

Ⅳ. 추진성과
1. 〈경기도 메모리〉 이용 현황
2. 대외 홍보

Ⅴ. 향후 과제
1. 아카이빙 교육 및 시스템지원
2. 지역자료 수집·보존 제도적 정비
3. 수집 자료의 가치 확산

Ⅵ. 맺음말

요 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경기도내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되어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종합목록시스템과 장애인, 임산부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택배서비스, 독서활동 및 정보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2014년부터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장 차원에서 도내 각종 문화 기관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경기도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 메모리〉(memory.library.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메모리〉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미래 세대에 전승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공공기록물 중심 원문 DB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기반 조성 단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서비스 검토 단계를 거쳐 2014년 본격적으로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와 협력, 확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역 공공도서관과 경기도내 다양한 문화 기관, 일반 이용자, 경기도 등 4개 핵심 주체가 유기적 연계 하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경기도DB, e-추억상자,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테마자료, 경기문화자원LINK(gglod.library.kr), 경기도OAK(oak.library.kr), 경기도 역사·민속정보서비스(gcatalog.library.kr)이 있으며,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사진자료 3,199점, 개인 기록물 수집 자료 177종을 포함하여 총 13,830종 3,967,362면을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수집 기관별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지방 의회, 산하 공공기관, 교육청, 경기도내 문화원, 지역별 향토사연구기관, 분야별 지역 기반 민간단체 등 경기도내 791개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올해 〈경기도 메모리〉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아카이빙 교육 및 시스템 지원, 지역 자료 수집·보존 제도적 정비, 수집 자료의 가치 확산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Ⅰ. 서 론

1. 〈경기도 메모리〉란?

지역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하는 활동은 도서관의 고유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도서관의 지역자료 서비스는 지역에 관한 기억을 보존하는 아카이브 기능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돕고, 기록을 통해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도서관에서 향토자료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해 오고 있다. 전국도서관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체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약 92%가 도서관을 통해 향토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현태 2016).

특히 최근에는 서울도서관(http://lib.seoul.go.kr)의 서울 지식정보, 인천 화도진도서관의 향토·개항문화 자료관(https://hto.ihl.kr), 부산도서관넷(http://www.busanlib.net)의 부산정보 등과 같이 실물 기록자료 수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 형태의 파일로 가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에서 수

집한 지역 자료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들도 확산되어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2014년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관한 지역자료를 수집하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메모리〉(memory.library.kr) 서비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메모리〉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미래 세대에 전승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경기도 메모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과 기존에 수집해온 콘텐츠의 이용 확대, 또 외부적으로 경기도내 산재한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생산 기관들이 기대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영역 확대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도서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서관의 자료 관리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미디어 자료실 보급이 확산됨과 동시에 정보 매체도 기존의 종이책 중심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 한때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도서관들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새로운 미래의 정보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도 2000년대 초반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더 이상 수동적인 전자책 서비스만으로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간동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술은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상용 전자책을 구입하여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 이외에 온라인상에서 특별한 진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 속에 〈경기도 메모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나. DB 구축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

지금까지 온라인 지역・향토자료 서비스라고 하면 주로 지역에 관한 책자형태의 자료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을 업로드한 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 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서비스 방식이지만 이용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검색 문제를 들 수 있다. 서명, 저자, 출판사항 등 기초적인 서지 데이터를 검색 키워드로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더라도 자료 자체가 담고 있는 많은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일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2004년 발간한『세계화 시대의 실학과 문학예술』이라는 책에서는 실학파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인 정약용의 한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본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단순 서지정보 키워드 검색만으로 소장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인터넷 포탈을 통한 검색 또한 마찬가지로 대학이나 국립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가 아닌 지역의 소규모 공공・민간 기관, 지역 향토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비상업적인 자료들을 지역의 도서관 이용자와 잠재적인 모든 이용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DB구축 뿐만아니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사회의 수집·보존 관심 증대

경기도내 문화원 직원, 향토사학자 등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5월,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여 열린 세미나에서 과거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경기대학교 강진갑 교수는 경기도사(道史) 편찬 과정에서 수집한 수많은 문서와 사진 자료들이 경기도사 편찬 이후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모두 소실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2018년 경기도 탄생 1000년을 앞두고 공공영역에서 경기도에 관한 역사・

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천문화원 이동준 사무국장도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문화원들이 수십 년간 지역 향토사에 관한 수많은 귀중한 연구 성과물들을 만들어 냈지만 그 목록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메모리〉사업의 필요성에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경기도 2014). 각 기관에서 자생적으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도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 기술적인 제약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접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3. 추진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기억을 수집·보존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나 〈경기도 메모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가. 지역 사회 협력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양질의 콘텐츠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자료의 경우 일반 출판 인쇄물과 달리 대부분 상업적인 판매가 이루어지 않으며, 유통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 중앙도서관의 경우 납본이라는 법률적 제도가 있지만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자료수집의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관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단지 자료 수집의 용이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참여 기관 입장에서도 각 기관이 생산한 지역 자료를 대외적으로 널리 공유하고 타 기관이 생산한 자료를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나. 확장가능성

단순히 지역에 관한 자료를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자료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용 범위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링크드 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주제들을 관한 연관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던가, 온라인 콘텐츠를 오프라인 전시 및 강연과 연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역자료에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나 향토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지속가능성

지역 자료의 수집과 축적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도서관의 고유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나가고자 한다. 과거에 만들어진 지역자료를 수집해서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되는 지역 자료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여 업데이트하는 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아카이브 업무는 향후 몇 년 안에 사업을 완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십 년 이상 유지되어야 아카이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수집하여 공유하고, 꾸준히 시스템상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가고 있다.

Ⅱ. 추진체계 및 경과

1. 추진체계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은 지역 공공도서관, 도내 문화기관, 일반 이용자, 경기도 등 4개 핵심 주체들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 공공도서관

경기도내에는 31개 시·군과 경기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 등 총 235개('16.6.30 기준)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해당 지역의 실물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집된 자료는 〈경기도 메모리〉 센터에서 원문DB 구축을 수행하며, 구축된 원문DB는 다시 도서관으로 전달하여 각 기관에서 전문적인 온라인 지역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통해 종합목록과 상호대차 서비스,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역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창구로서 서비스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역할과 〈경기도 메모리〉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나 인문학강연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는 기능도 담당한다. 참여와 협력의 정도는 해당 도서관 담당자의 의지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우수 협력 사례 등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나. 도내 문화기관

경기도 지역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문화원, 박물관·미술관, 지역기반 학회, 향토 연구소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경기도 메모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차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 곳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였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문화원의 연합체인 경기도문화원연

합회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경기도 메모리〉 사업 취지에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공동으로 시・군 문화원에서 발간하였거나 소장하고 있는 자료 현황 및 관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자료수집과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 수원박물관 등 공공기관들과 경기학회, 골목잡지 사이다를 발간하는 민간기업 더페이퍼 등 지역 연구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 네트워를 만들어 나갔다. 이들 전문 기관들과의 협력은 도서관에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지역 역사・향토자료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를 돕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 일반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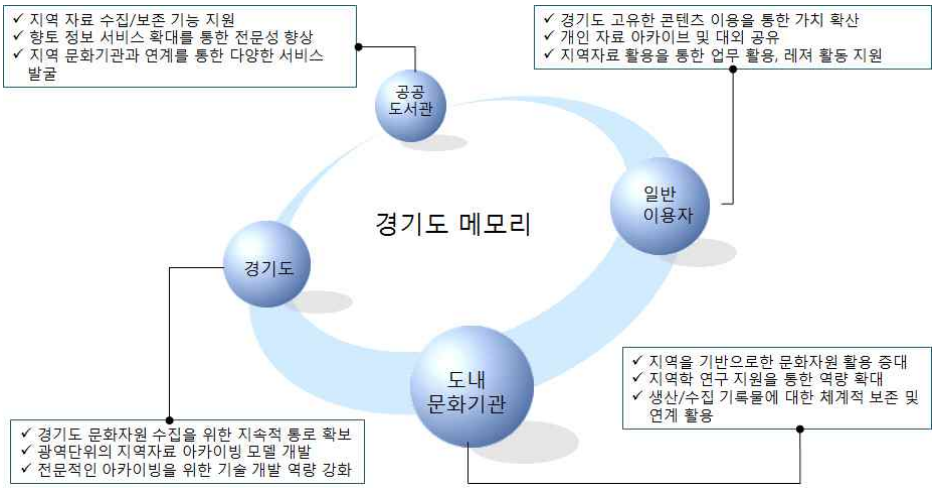
학술적인 목적, 업무적인 목적 또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경기도 메모리〉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도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지난 2016년 이용실태조사 조사 결과 만족도는 75.4점으로 홍보 부족(27%), 자료 확보(23%), 주제의 다양성(18%)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메모리〉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도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경기도 메모리〉에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e-추억상자"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콘텐츠 생산 주체로서 개인의 기록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라. 경기도

경기도(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경기도 메모리〉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 공공도서관과 참여 기관이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가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콘텐츠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여 본격적인 참여형 아카이브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타 광역지자체와 국가중앙기관, 전문적인 콘텐츠 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도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경기도 메모리〉 추진 체계

2. 추진경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기관 발간 자료 중심 원문 DB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준비 단계를 거쳐 2014년 〈경기도 메모리〉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간 추진 과정을 기반조성과 서비스 검토, 서비스 구현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1단계 : 기반조성(2005-2010)

지역 자료 온라인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인쇄자료를 수집하여 스캔 후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경기도 DB" 서비스 시작하였다.

매년 1회 경기도내 공공도서관과 각 지역 행정자료실을 통해 수집된 지역 자료를 인계받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였다. 경기도에서 발간된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지역 자료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자료 제공 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수동적 방식의 접근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자료수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경기대학교에 의뢰하여 「경기도 디지털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방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경기대학교 조현양 교수)를 수행하였다. 연구 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모형과 모바일 서비스 방안, 오픈 API 기반 시스템 기능적 요건 도출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2단계 : 서비스 검토(2011-2013)

본격적인 온라인 지역 정보 서비스를 위한 구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기존 공공기록물 중심 경기도 DB 서비스를 확대하여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e-추억상자” 코너를 마련하고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거나 직접 생산한 콘텐츠 가운데 저작권상에 문제가 없는 자료를 전달받아 서비스 하였다. 2012년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개관 10주년으로 그간 사진자료와 축하 메시지, 발간자료 등을 따로 모아 테마 콘텐츠로 구성하여 서비스하였으며, 당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추진하던 오픈 엑세스 코리아(OAK) 사업(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에 국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하여 그간 수집한 경기도 공공기록물을 서비스하였다.

특히 2012년 만들어진 「경기도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3-2017」, 『경기도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3-2017』 속에 “경기도 메모리 포탈 운영”을 추진 과제로 포함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다. 3단계 : 서비스 구현(2014-2016)

이전까지 경기도사이버도서관(www.library.kr) 웹사이트에서 하위 메뉴로 운영하던 경기도 DB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2014년 〈경기도 메모리〉(memory.library.kr)

웹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였다.

새로운 사이트로 개설하였으나 사업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지역향토자료 서비스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도내 향토 역사·문화 관계 기관, 학자, 도서관 직원 등이 참여하여 향후 지역 자료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경기도내 문화기관 관계자와 문헌정보학·기록학연구자, 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TFT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은 2014년 시작하여 매년 정례화 하여 추진 중에 있다.

TFT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링크드 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 키워드들에 대한 정보와 연관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도 문화자원 LINK”를 개설하였다. 경기도문화재연구원에서 수집한 경기도 역사·민속정보원을 웹서비스로 구현하였으며,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살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엮어 “경기도민 이야기”라는 구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경기도 지역자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 연구소에 의뢰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자 한다.

〈표 1〉 〈경기도 메모리〉 추진 경과

단 계	내 용	주요서비스
1단계 : 기반 조성 2005 – 2010	– 단순 원문 DB 구축 – 수동적인 자료 수집 –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검토	– 경기도 DB
2단계 : 서비스 검토 2011 – 2013	– 경기도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내 〈경기도 메모리〉 구축 계획 포함 – 개인기록물 수집·디지털 서비스 개시 – Open Access Korea 참여	– e-추억상자 – 경기도 OAK
3단계 : 서비스 구현 2014 – 2016	–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 오픈 – 지역자료 서비스 다변화 –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TFT 운영 – 〈경기도 메모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 경기도민 이야기 –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 경기도 문화자원 LINK – 경기도 역사·민속 정보

Ⅲ. 주요 서비스 소개

1.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 개요

가.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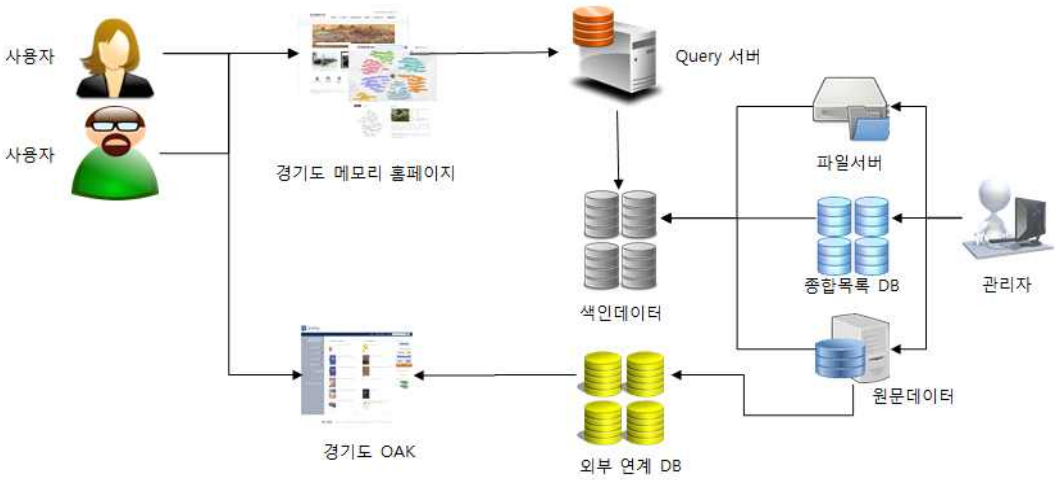
〈경기도 메모리〉(memory.library.kr) 웹사이트의 메인 메뉴는 경기도DB, e-추억상자,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테마자료, 경기도 메모리 소개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서비스로 경기문화자원LINK(gglod.library.kr)와 경기도OAK(oak.library.kr), 경기도 역사・민속정보서비스(gcatalog.library.kr)를 운영하고 있다. 화면 상단에는 소장 자료 검색창을 배치하여 서지정보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화면 중앙에는 이용률이 높은 시각 자료 중심으로 오늘의 사진, 테마자료, 경기문화자원LINK를 배치 배치하였다. 특히 오늘의 사진 메뉴는 사진 DB에서 해당 월에 찍은 사진을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기록사진을 보여준다. 화면 하단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www.library.kr) 웹사이트 공통 메뉴를 아이콘으로 형상화한 픽토그램을 배치하였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 메모리〉를 통해 서비스하는 지역자료는 2016년 7월말 기준 총 13,830종 3,967,362면이며 이 가운데 책자형 인쇄발간물이 10,454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자료는 3,199점, 개인 기록물 수집 자료는 177종이다. 수집 기관별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지방 의회, 산하 공공기관, 교육청, 경기도내 문화원, 지역별 향토사연구기관, 분야별 지역 기반 민간단체 등 경기도내 791개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경기도 메모리〉 메인 화면

나. 시스템 구성

현재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메인 시스템 관리자가 지역자료 관리시스템에 원본 파일과 더블린코어 기반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 키워드를 추출하여 보관한다. 이용자는 검색창에서 키워드 검색이나 카테고리별 접근을 통해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경기도내 모든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목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사이버도서관(www.library.kr) 메인화면에서 통합검색을 지원하여 원문 파일 뿐만 아니라 실물 자료의 소장위치를 파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오픈소스를 활용한 참여형 아카이브 시스템 구현을 통해 참여기관에서 직접 데이터를 등록하고 자관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6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메모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그림 3] 〈경기도 메모리〉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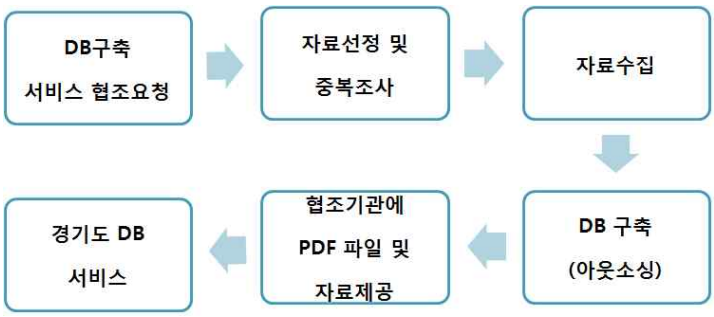
2. 서비스 내용

가. 경기도 DB

경기도DB는 〈경기도 메모리〉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로 경기도와 관련하여 정보적, 학술적,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 시·군史, 유적, 역사적 사실, 인물 등 역사자료, 민속, 축제, 문화, 영화, 미술, 음악 등 문화자료, 각종 용역자료, 통계자료, 보고서 및 연구자료 등 행정자료를 구축 대상으로 한다.

매년 1회 도내 도서관, 문화원,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사업 안내와 DB 구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수집된 자료를 중복조사와 실물자료 인계, DB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서비스 한다.

DB구축 단계에서는 300dpi 고해상도 이미지 스캔후 PDF 포맷으로 변환하여 서비스하며, 기본 서지정보, 요약정보, 목차 정보 등 메타데이터 구축도 동시에 진행한다. 스캔이 끝난 자료는 데이터 파일과 함께 제공기관으로 반납하여 각 기관에서 자료 보존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4] 경기도DB 구축 진행 단계

키워드 검색은 지역, 발행연도, 분류번호로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검색결과가 많을 경우 결과내 검색과 클러스터링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제와 발행기관별로 카테고리 검색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이용 편의성 차원에서 문화원, 잡지, 경기도보를 별도의 메뉴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DB에 구축된 원문 데이터는 Open Access Korea 사업과 연계하여 구글 등 검색 포탈을 통해서도 자료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그림 5] 경기도 DB 자료 검색

나. E-추억상자

e-추억상자는 경기도민 개인들이 수집했거나 직접 창작한 콘텐츠를 주 대상으로 한다. 개인의 기록들이 모여 경기도의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모토 아래 경기도내 공공도서관과 〈경기도 메모리〉 참여기관, 학교, 공공시설 민원실 등을 통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여 자료 기증자를 모집하고 있다. 역사/행정, 학창시절, 일상생활, 취미/수집, 개인창작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를 전달받아 원문DB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인근 지역내 초등학교의 관심 있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일기장, 스케치북, 사진첩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다양한 경로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접한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자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하였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에는 1978년 경기도 가평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은퇴 후 2012까지 작성한 가계부와 1961년 중학교시절부터 써온 일기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은 과거 경기도의 생활 물가와 급여 수준, 생활 방식 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집한 자료는 자료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 스캔 후 다시 자료를 되돌려 주거나, 기증을 받아 향후 오프라인 전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기도 메모리〉와 관련한 사업들이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대도시의 중앙도서관을 염두해 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E-추억상자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에 보다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7월 기준, 177권 총 20,271면을 구축하였으며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아 DB로 축적하고 있다.

[그림 6] e-추억상자 수집자료

다.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지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사진 자료이다. 사진 자료를 통해 끊임없이 변모하는 경기도민의 삶과 기억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사진 자료를 별도로 모아 서비스 하고 있다.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 경기도청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1963년 이후 사진자료를 인계받아 DB로 구축하였다.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사료 보존을 위해 축적한 데이터인 만큼 경기도와 관련한 역사적으로 중요 사건들을 담은 사진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후 주로 기관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얻어 사진 DB를 구축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경기도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 도서관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3,199점의 사진 DB를 보유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7] 사진으로 보는 경기도 주요 사진

라. 테마자료

잊혀져가는 경기도의 기억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관련 자료와 구술 인터뷰를 모아 서비스하고 있다. 매년 1회 〈경기도 메모

리〉 참여기관 담당자와 기록학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주제를 선정한다. 2014년 “경기도 한국전쟁 실향민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5년 “지금은 잊혀진 협궤열차 이야기 – 수여선”을 제작한데 이어 올해 “경기북부 전통술”을 주제로 테마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테마자료는 인터뷰 녹취뿐만 아니라 영상,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립된 웹페이지로 구성하고, 별도의 단행본 책자로 제작하여 경기도내 도서관과 문화 기관 등에서 배포하였다.

특히 “지금은 잊혀진 협궤열차 이야기–수여선”의 경우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경기도를 동서로 잇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수여선이 지나던 수원, 용인, 이천, 여주지역의 도서관과 연계하여 순회 전시와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향토자료가 단순히 개인들의 연구 목적이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도보 답사 프로그램이나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용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그림 8] 경기도 한국전쟁 실향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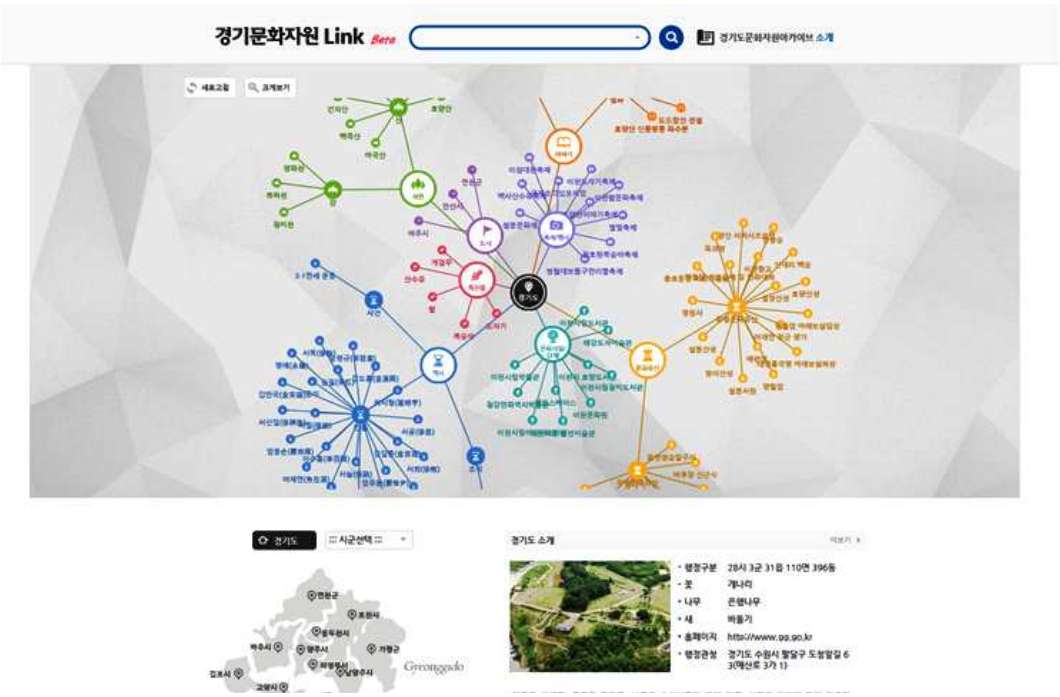
[그림 9] 수여선 선경도서관 순회 전시

마. 경기도 문화자원 LINK

2014년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 개설 이후 문헌정보학과 기록학 전문가, 참여 기관 담당자, 향토사학자 등이 주축이 되어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TFT를 구성하고 약 6개월여에 걸쳐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

도 지역의 문화 자원간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원을 모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링크드 데이터기반 연계 검색 서비스가 제시되었다.

2014년 하반기 시범 모델 개발을 거쳐 2015년 경기도를 대표하는 1,000개의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들 키워드에 기초 정보와 원문DB를 연결하여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경기도 문화자원 LINK는 향후 참여기관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일회성으로 DB를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 기관들이 신규 콘텐츠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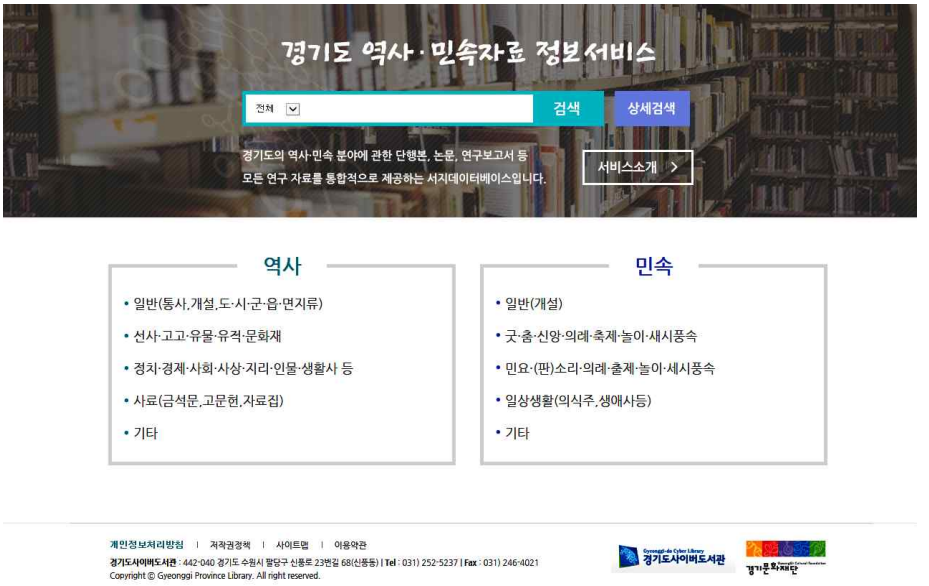


[그림 10] 경기문화자원LINK 서비스 메인 화면

바. 경기도 역사 · 민속정보 서비스

지난 2014년 경기도문화재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역사 · 민속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경기도 역사 · 민속 연구자료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1900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 대한 모든 서지 정보를 담고 있어 경기도 관련 학

술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책자형 자료다 보니 검색이 어렵고, 원본 자료를 찾기 위해 또 한 번의 수고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문화재연구원와 협의를 거쳐 이들 자료 목록을 DB화하여 온라인 서비스(gcatalog. library.kr)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역사와 민속을 주제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기타 자료를 포괄하고 있고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카테고리를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자료별로 제목, 저자/역자, 발행 연도, 발행처, 학위수여기관, 소장기관, 원문여부, 자료형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메모리〉 사이트에 원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문(full-text)으로 연결하며, 경기도 도서관 종합목록 시스템과 연계하여 소장 위치를 안내 한다.



[그림 11] 경기도 역사 · 민속자료 정보서비스

사.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

〈경기도 메모리〉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지역사학자 및 역사 · 문화기관 등 잠재적 이용계층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를 알려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 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영역에서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후속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TFT를 구성하여 논의를 구체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12] 경기도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

아. 〈경기도 메모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 역사·문화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 〈경기도 메모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브 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사업 범위에는 〈경기도 메모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 경기도내 문화기관들의 자료 관리현황, 관리 시스템의 기능 요건, 향후 2020년까지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2016년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관계부서와 도의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Ⅳ.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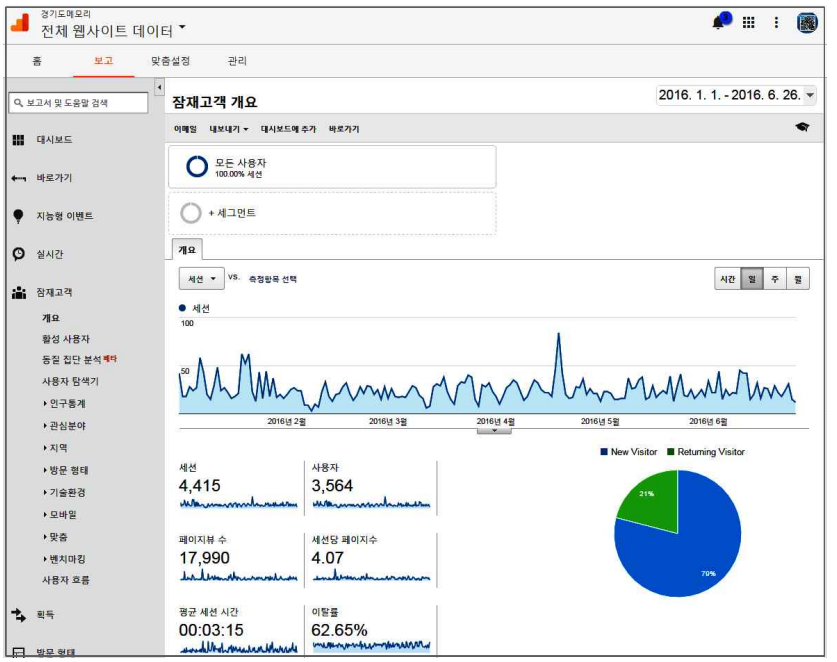
1. 〈경기도 메모리〉 이용 현황

가. 구글 웹로그 분석

실제 〈경기도 메모리〉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글 웹로그분석(구글 애얼리스틱)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구글 웹로그분석은 웹서비스 유입경로와 이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분석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활용해 오고 있다.

아래 [그림 13]은 구글 웹로그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올해 1월부터 6개월까지 2016년 상반기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 6월간 방문한 이용자는 총 3,564명이며 17,990회의 사이트뷰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별로 편차가 있긴 하나 월 평균 대략 600명이 3,000회 정도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수치이다. 연령대별로는 25~34세 사이가 33.5%로 가장 높고, 다음이 18~24세 27.5%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성별 면에서는 남성이 54.2%로 여성보다 약 8%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재 〈경기도 메모리〉 서비스가 메뉴별로 별도의 도메인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이용 현황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이용률은 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웹로그분석을 실시한 기간이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보여주는 데이터는 향후 이용 추이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 운영과 개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림 13] 〈경기도 메모리〉 구글 웹로그분석 기본정보

나. 자료이용 현황

〈경기도 메모리〉에서 원문DB로 구축한 자료들의 연도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메모리〉로 서비스를 개편하기 이전인 2013년 1,565건에 비해 서비스 개편이 후인 2014년은 9,811회로 6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개편과 함께 이용기준을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에는 총 24,260회로 전년에 비해 약 2.5배 늘어났으나 내부적으로 유입요인을 파악해본 결과 "경기도문화자원LINK"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기존 자료 확인을 위해 이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이용률은 6,679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으로 이용률은 증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별로 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e-추억상자"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이연순 님의 창작집 '자연이 주는 행복'이 86회, 백인자님의 '가계부'가 83회, 허봉규 님의

‘1970~80년대 우표 수집’이 77회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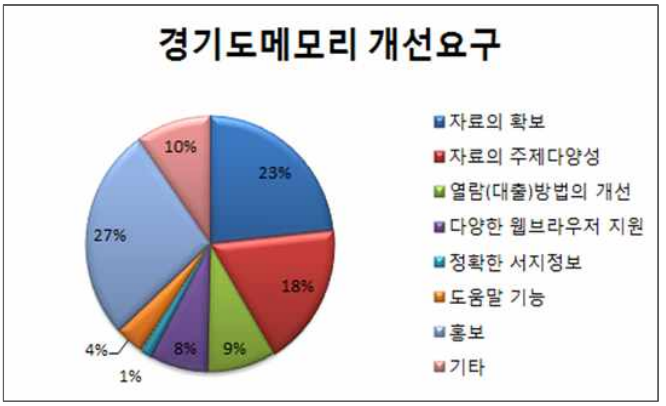
〈표 2〉〈경기도 메모리〉 연도별 자료 이용현황

년도	2013	2014	2015	2016.6
대출건수	1,565	9,811	24,260	6,679

다. 〈경기도 메모리〉 이용 만족도 조사

실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메모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6년 1.15부터 1.25까지 10일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메인화면 베너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모두 20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경기도 메모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 15.8%, 만족 46.3%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1%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전자책 65.4, 내 생애 첫도서관 69.7%, 북매직 66.2% 등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5년도 52.1%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홍보 27%, 자료의 확보 23%, 주제의 다양성 18% 순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콘텐츠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경기도 메모리〉 개선 요구 사항

2. 대외 홍보

가. 언론보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외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경기도 메모리〉 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지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경기도 정책 방송 G뉴스 플러스, 경인방송 등 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e-추억상자]

- 경기도대표도서관 'e-추억상자' 사업 추진 [국민일보, 2013.11.07.]
- 작고 다양한 당신의 삶을 경기도 e추억상자 속에 '쏙' [매일경제, 2013.11.08]

[경기도OAK]

- 경기도 대표 도서관, '기관저장소'에 선정 [연합뉴스, 2012.07.29.]
- 경기도 대표도서관, OAK리포지터리 구축기관으로 선정 [아주경제, 2012.07.30.]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

- 道 문화·역사 아카이브化… '경기천년' 준비 첫발 [경기일보, 2014.05.08.]
- 경기도 정체성 위해 지역자료 수집 필요 [경기일보, 2014.05.12.]
- '경기천년'… 道 문화자원 집대성, '아카이브' 필요하다 [경기일보, 2014.05.13.]

[테마자료 경기도민 이야기]

-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경기도민 이야기' 출간 [연합뉴스, 2015. 3.28.]
- 타양살이해도... "꿈엔들 잊힐리야" [경인일보. 2015.03.30.]
- 실향민이 전하는 경기도 정착기, 책으로 출간 [경기일보, 2015.03.30.]
- 지금은 사라진 협궤열차 '수여선'을 아시나요? [한국일보, 2016.1.20.]
- 도민과 동고동락… 꼬마철마 수여선 [경기일보, 2016.01.21]
- 잊혀진 협궤열차 '수여선', 경기도 도서관에서 만난다 [연합뉴스, 2016.05.04.]
- 그 시절 협궤열차… 경기도, '지금은 잊혀진 협궤열차 이야기 수여선' 전시회 [경인일보, 2016.05.05.]

나. SNS를 통한 홍보

대중 매체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홍보와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6년 6월말 기준 페이스북 친구는 4,120명, 트위터 팔로워는 2,665명이다.

[그림 15]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주위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간단하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심도 있는 장문의 내용을 전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월1회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이메일로 전송한다. 뉴스레터에는 “이달의 콘텐츠” 코너가 있는데 〈경기도 메모리〉에

구축한 자료 가운데 시의적절한 자료를 골라 안내하고 있다. 지난 7월의 경우 방학을 테마로 잡아 〈경기도 메모리〉에 소장하고 있는 1964년도 〈방학공부〉 책자를 소개한 바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16년 6월말 기준 약43만9천명이다.

Global Inspiration 경기도도서관 JULY 2016 NEWS LETTER 48호

칼럼
특집
함께하는 독서
이달의 콘텐츠
링크
사서들의 책이야기

이달의 콘텐츠
방학공부

부모들에게는 관심을 요하고, 학생들에게는 신나는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구에게나 학창시절에 가장 기다렸던 또는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방학'이 상위 순위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규칙적인 생활과 학업의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좋은 기간이니까요.
보통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경우 방학은 대개 7월 20일경부터 8월 20일경까지가 여름방학, 12월 20일경부터 1월 20일경까지가 겨울방학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방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학의 목적은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전환하며, 다음 학기의 학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다. 또한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름의 더운 계절과 겨울의 추운 계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더위와 추위도 방학의 중요한 한 요인이 된다.」

방학 [放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요즘은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로부터 몇 장의 유인물을 통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받고 있지만, 과거시절에는 방학을 맞이하면 방학동안 수행해야할 과제들이 책자로 묶여 시.군 단위로 일괄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방학교재에서 변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날짜별에 따른 활동과 날씨현황을 기록하게 하는 항목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경기도메모리(memory.library.k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1964년, 1966년 대한교육연합회에서 발간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교재로 1964년도 당시 2학년이었던 김상헌 어린이의 교재입니다.

[그림 16] 경기도 도서관 뉴스레터 「이달의 콘텐츠」코너

V. 향후 과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최신 기술 동향을 시스템에 반영해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외적으로는 관계 기관들과 네트워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경기도 메모리〉를 향후 지역 내 도서관 및 문화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관계 속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향후 과제를 설정하였다.

1. 아카이빙 교육 및 시스템지원

사업 초기 경기도내 도서관 및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향토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 하지만 예산과 전문 지식 부족을 이유로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메모리〉는 지역자료 아카이브의 아카이브로서 경기도내 도서관과 문화기관들이 각 기관에서 생산 하였거나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방법과 각종 표준화된 지침을 교육해 나가고자 한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시스템 지원도 중요한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및 온라인 저장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관심 있는 지역 내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아카이브 관련 오픈 소스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구상중이며 2017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자료 수집 · 보존 제도적 정비

대내외적으로 경기도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공신력을 높이고, 사업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일관된 방침 하에서 〈경기도 메모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과 연계하여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역 자료 수집 · 보존 기능을 관한 사항과 지역 자료에 대

한 납본 제도 의무화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운영, 수집 기준과 방법, 관리·보존 업무에 관한 사항, 소장자료 활용, 저작권 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한다.

3. 수집 자료의 가치 확산

단순히 지역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미 '경기도민 이야기 수여선'과 같은 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기획전시나 인문학 강좌 등과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본바 있다.

향후 학교교육과 연계한 지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과 같은 일반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을 기반으로한 향토사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참고봉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 메모리〉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상호 밀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

VI. 맺음말

인터넷 발달과 검색 포탈의 기능 강화로 과거 도서관의 고유한 기능이었던 정보서비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여 수집하고, 목록을 만들어 전달하는 업무 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독서 축제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성 업무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교류하고, 도서관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도서관이 담당하던 정보서비스 기능 가운데 많은 부분을 검색포탈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의 홍

수 속에서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여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은 여전히 도서관이 갖는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 애착을 갖고 오랫동안 살아오며 만들어낸 삶의 이야기들,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과거로부터 입에 입을 거쳐 전해 내려오는 그 지역의 옛 이야기들, 과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낡고 빛바랜 사진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상업적 영역에서 배재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은 지역의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경기도 메모리〉는 그간 도서관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여겨졌지만 개별 도서관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지역자료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해 내는 주체들을 엮어내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경기도 메모리〉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면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속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아직 사업 초기라 가야할 길이 멀지만 〈경기도 메모리〉를 통해 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정보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여러 구성원 사이에서 지역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주도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경기도, 2012.『2013-2017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0.『경기도 디지털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4.『2014 경기도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 자료집』.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4.『경기도문화자원 아카이브 연계 문화원 자료 디지털화 방안 연구』.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6.『2016 경기도 문화자원 아카이브 심포지엄 자료집』.

노영희, 강정아, 2014.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67-93.

문정희, 장우권, 2008. 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실태분석.『한국정보관리학회』, 25(3): 297-320.

정현태, 2016. 향토자료/지역자료-네트워크사회 공공도서관의 경쟁력의 요체.『도서관문화』, 57(7): 30-31.

논 문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접근성 제고를 통한 공공도서관 이용 증진 방안

: 유동인구DB를 중심으로

김 정 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지역 및 분석방법

1.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접근성
2. 유동인구 분석 지역
3. 유동인구를 통한 접근성 분석

Ⅳ. 분석결과 및 해외사례

1. 유동인구와 공간적 접근성의 상관관계
2. 접근성을 제고시킨 해외사례

Ⅴ.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유동인구 DB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 이용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지도와 유동성 정보 데이터를 활용했다. 접근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영등포구와 가장 낮게 평가된 광진구를 비교하여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과 유흥업소 분포지역을 공공도서관의 위치와 대조했다. 두 지역의 도서관 회원 등록자 수 및 이용자 수를 비교·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낮은 지역의 공공도서관보다 더 높은 이용자 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애틀과 영국 런던, 일본 도쿄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도서관을 위치시켜 많은 이용자수를 확보했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선진적인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향후 우리나라 역시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에 스토어 형식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입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이 이뤄져야 하겠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접근성, 유동인구, 이동 동선, 이용자 수

Ⅰ. 서 론

공공시설은 다수의 사람이 모여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공시설 계획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정보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책을 빌려 보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문화공연과 강연을 볼 수 있는 공공 쉼터의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은 이용 증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지역 주민의 이용에 대한 편리성보다 시설물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박성재, 이지연, 2005). 이러한 입지는 공공도서관의 이용률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성인 30.3%, 학생 61.5%가 1년 동안 한 번 이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인들의 10.1%와 학생들의 33.4%가 '집에서 멀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접근성이 도서관을 찾지 않는 성인들의 세 번째, 학생들의 첫 번째 이유이다.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은 타 공공기관과 함께 모여 있다. 거대한 공공기관 범위에서 공공도서관을 찾아 들어가는 절차 역시 접근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형 서점에서는 서점 내부 공간 한 켠을 도서관의 형태로 꾸며놓고 책 읽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이데일리 2016). 지역 공공도서관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이동 동선이 중복되고 지리적·절차적 접근성이 높은 대형 서점을 찾는 것이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미국 시애틀과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규모가 큰 도시 지역에서는 유동인구 분석에 기초한 공공도서관이 있다. 쇼핑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번화가 중심에 공공도서관이 설립되면서 많은 이용자 수의 확보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얻게 됐다. 이는 접근성을 제고시켜 도서관 운영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첫째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밀집도와 유

흥시설 분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자료를 비교·대조하여 유동인구와 공공도서관의 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분석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GIS 정보 활용을 골자로 진행됐다. 김현중·이종길·여관현(2015)은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접근성과 접근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했다. 접근성 측정은 집계구 수준에서 접근성을 산출한 후, 동 단위에서 평균적인 접근성 지수를 계산했고,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여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회귀분석하였다. 아직 공공도서관의 입지를 평가하거나 최적의 입지를 탐색하는 연구는 미미한 수준임을 밝혔고, 좀 더 미시적이고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GIS 분석 정보를 본 연구에 적용했다. 본 연구에 앞서 서울지역 유동인구의 밀집도와 유흥업소의 분포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서울시 유동인구 융복합정보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국가 DB 사업으로 구축한 GIS 정보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유동인구 밀집지역과의 연관성 분석을 시도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정책지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GIS 정보 또한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현황 DB를 산출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GIS 정보와 도서관 통계 DB를 융합하여 집계자료로 활용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정보 산출과정은 미흡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접근성과 유동인구 및 유흥업소 분포에 대한 상관성을 도출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Ⅲ. 분석지역 및 분석방법

1.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접근성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한 논문을 본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김현중, 이종길, 여관현 2015). 김현중, 이종길, 여관현의 공동 논문인『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와 결정요인』에서는 서울시의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분석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까지 순위를 매겼다. 회귀분석을 이용했고 독립변인으로 인구・경제 특성과 교통・입지 특성, 그리고 자연특성 등을 설정했다. 인구・경제 특성은 다시 상주인구 수, 대졸자 비율, 공시지가로 나뉘고 교통・입지 특성은 간선도로와의 거리,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거지 집중도로 나뉜다. 자연특성은 표고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공공도서관 접근성의 상위 및 하위 지역 분포

(단위: m)

순위	구지역평균		접근성 상위 25개 동지역			접근성 하위 25개 동지역		
	구명	접근성	구명	동명	접근성	구명	동명	접근성
1	영등포구	650	동작구	사당1동	138	광진구	능동	3,961
2	금천구	924	종로구	명륜3가동	180	성동구	마장동	3,815
3	동작구	954	서초구	내곡동	199	광진구	중곡3동	3,266
4	강남구	1,048	동작구	상도4동	228	서초구	반포본동	2,856
5	강동구	1,097	종로구	삼청동	270	광진구	구의3동	2,793
6	종로구	1,120	종로구	무악동	344	광진구	중곡2동	2,757
7	노원구	1,130	영등포구	당산1동	345	구로구	개봉3동	2,728
8	강서구	1,163	서대문구	남가좌1동	352	구로구	오류1동	2,708
9	도봉구	1,221	영등포구	신길5동	363	광진구	구의1동	2,694
10	서대문구	1,222	성동구	송정동	363	은평구	응암2동	2,693

순위	구지역평균		접근성 상위 25개 동지역			접근성 하위 25개 동지역		
	구명	접근성	구명	동명	접근성	구명	동명	접근성
11	성동구	1,257	성동구	사근동	386	용산구	청파동	2,673
12	은평구	1,278	영등포구	당산2동	402	용산구	이태원2동	2,665
13	강북구	1,354	강남구	대치1동	410	서초구	반포2동	2,643
14	마포구	1,376	종로구	교남동	418	구로구	가리봉동	2,625
15	양천구	1,380	강동구	길동	420	용산구	보광동	2,620
16	중랑구	1,386	영등포구	여의동	421	광진구	군자동	2,609
17	송파구	1,555	동작구	상도1동	427	광진구	중곡4동	2,605
18	성북구	1,608	영등포구	신길4동	427	노원구	상계3・4동	2,550
19	동대문구	1,673	영등포구	신길3동	433	용산구	이태원1동	2,550
20	구로구	1,724	광진구	자양2동	437	서초구	방배본동	2,541
21	서초구	1,742	동작구	사당3동	443	용산구	한남동	2,530
22	중구	1,826	영등포구	양평1동	454	서초구	반포1동	2,514
23	관악구	1,883	금천구	시흥5동	460	용산구	이촌2동	2,492
24	광진구	1,966	영등포구	신길1동	474	서초구	서초2동	2,444
25	용산구	2,195	금천구	시흥3동	480	동대문구	이문1동	2,435

영등포구가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였다. 반면 용산구는 접근성이 가장 낮았다. 접근성을 다시 상위 25개 동지역과 하위 25개 동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하위 25개 동지역 중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의 구 지역을 살펴보면 광진구가 다섯 군데로 가장 많았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주인구수와 대졸자 비율, 주거지 집중도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의 경제적 수준, 간선도로와의 거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위 논문에서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의 집중도를 추가하여 공공도서관 접근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2. 유동인구 분석지역

위 논문의 결과,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지역구는 영등포구다. 반면 가장 낮게 평가된 지역구는 용산구다. 하지만 용산구는 지역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 용산도서관과 청파도서관으로 그 수가 2개에 불과하다. 또 접근성 하위 25개 지역 중 광진구 동지역이 10순위 중 다섯 군데나 차지한 결과를 보았을 때, 용산구보다 광진구를 하위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접근성 최상위 지역인 영등포구와 최하위 지역인 광진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수는 5개로 ①대림정보문화 도서관, ②문래정보문화 도서관, ③선유정보문화 도서관, ④여의디지털도서관, ⑤영등포평생학습관이 이에 해당한다. 광진구는 4개의 지역 공공도서관이 있다. ①광진정보도서관, ②구의제3동 도서관, ③자양제4동 도서관, ④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의 위치와 해당 지역구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유흥시설 분포 지역을 분석하여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영등포구와 광진구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분석했다. 데이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 DB 사업으로 구축된 서울시 유동인구 융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유동인구는 다시 주중 유동인구와 주말 유동인구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영등포구의 경우 유동인구 조사지점 수는 583곳으로 일평균 유동인구 상위 5개 지역 지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영등포구 유동인구 요약-일평균 유동인구 상위 5개 지점

(단위: 명)

순위	지역	유동인구 수
1	영등포역 정류소 옆 횡당보도	31,702
2	kb국민은행	20,980
3	한국투자증권	19,901
4	코스콤광고기둥	17,168
5	삼천리빌딩	16,727

영등포구의 유동인구 분석을 주중 평균 상위 10% 이상 지역으로 산출하면 7,541명

이상 지역, 28곳으로 나타난다.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영등포구 유동인구 요약-주중평균 유동인구 상위 28개 지점

(단위: 명)

순위	지역	유동인구 수
1	정류장 우측	10,121
2	영등포롯데백화점 정문	9,767
3	100세 약국	9,684
4	신세계가판이 달린 건물 입구	9,605
5	현대해상화재 빌딩입구	9,573
6	KRX증권거래소	9,320
7	영등포구청	9,235
8	홈플러스 마트	9,232
9	택시정류소	9,113
10	제일빌딩	9,088
11	우리은행 한국신용정보	9,070
12	흑돈가	9,009
13	문래동자이아파트	8,948
14	제일열쇠철물	8,906
15	MBC경영센터	8,873
16	처갓집 호프	8,840
17	경원스파랜드	8,741
18	하남빌딩	8,702
19	sk, 증권건물	8,351
20	한중번역	8,152
21	하나대투증권	8,033
22	동화홀딩스 원창빌딩	8,002
23	서울신길5동 우체국	7,820
24	신협	7,726
25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7,718
26	인곡빌딩(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7,669
27	아일랜드파크 앞	7,630
28	트윈타워	7,615

유동인구 분석은 주중 유동인구와 주말 유동인구로 나눠 분석하였다. 주중 유동인구 분포와 주말 유동인구 분포는 차이를 나타낸다. 영등포구 주말 평균 상위 10% 이상 지역을 산출하면 6,570명 이상 지역, 26곳으로 나타난다.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영등포구 유동인구 요약–주말평균 유동인구 상위 26개 지점

(단위: 명)

순위	지역	유동인구 수
1	제일열쇠철물	9,456
2	영등포롯데백화점 정문	9,342
3	한중번역	8,973
4	펠리체아트홀(강남웨딩문화원)	8,667
5	당산공원 앞(우리은행 맞은편)	8,592
6	금산 건강원	8,583
7	인곡빌딩(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8,547
8	영등포구청	8,493
9	블루클럽	8,451
10	제일빌딩	8,271
11	우리은행	8,265
12	택시정류소	8,259
13	현대해상화재 빌딩입구	8,130
14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7,935
15	문래동자이아파트	7,686
16	Food 2900가게	7,650
17	신협	7,626
18	100세 약국	7,389
19	홈플러스 마트	7,260
20	시범아파트 건너편	7,248
21	기륭종합상사	7,128
22	백악관웨딩문화원뷔페	7,119
23	삼중대중탕	6,810
24	경원스파랜드	6,768
25	한영빌딩	6,756
26	도림새마을금고	6,612

다음은 하위 지역구에 해당하는 광진구의 경우를 살펴본다. 광진구 역시 주중 유동인구와 주말 유동인구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광진구의 경우 유동인구 조사지점 수는 300곳으로 일평균 유동인구 상위 5개 지역 지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광진구 유동인구 요약-일평균 유동인구 상위 5개 지점

(단위: 명)

순위	지역	유동인구 수
1	동서울버스터미널	22,301
2	잠뱅이	20,519
3	더 끌리지 건대점	20,050
4	The Girl(의류매장)	18,607
5	DALGONA 의류매장	17,243

광진구의 유동인구 분석을 주중 평균 상위 10% 이상 지역으로 산출하면 7,541명 이상 지역, 13곳으로 산출된다.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광진구 유동인구 요약-주중평균 유동인구 상위 13개 지점

(단위: 명)

순위	지역	유동인구 수
1	sk텔레콤 대리점	9,498
2	바이 더 웨이	9,259
3	오리엔탈 퓨전주점	8,858
4	롯데리아	8,781
5	국민은행 건대입구점	8,762
6	극동1단지 아파트	8,570
7	종로빈대떡 앞	8,522
8	국민은행 건대역점	8,266
9	광현교회	8,242
10	삼성 그랜드 타워 건너편(미니샵 옷가게)	8,153
11	중곡제일골목시장 수산물가게	8,021
12	육회지존	7,577
13	동래복국 앞	7,546

다음은 광진구의 주말 평균 10% 이상 지역이다. 6,570명 이상 지역, 19곳이다.

〈표 7〉 광진구 유동인구 요약-주말평균 유동인구 상위 19개 지점

(단위: 명)

순위	지역	유동인구 수
1	국민은행 건대입구점	9,567
2	오리엔탈 퓨전주점	9,465
3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앞	9,444
4	극동1단지 아파트	9,369
5	치킨뱅이	8,583
6	롯데리아	8,310
7	육회지존	8,088
8	구의공원 앞	8,082
9	국민은행 건대점	7,923
10	아차산 워커힐 갈래길 산 옆	7,611
11	육회달인	7,566
12	삼성 그랜드 타워 건너편(미니샵 옷가게)	7,563
13	동래복국 앞	7,395
14	민들레영토	7,332
15	빠리바게뜨 옆 태평양 약국	7,254
16	sk텔레콤 대리점	7,230
17	종로빈대떡 앞	6,954
18	광현교회	6,951
19	세명약국	6,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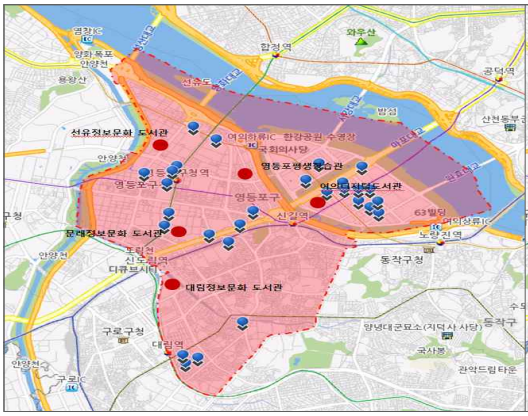
3. 유동인구를 통한 접근성 분석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높은 지역구인 영등포구와 낮은 지역구인 광진구의 주중 및 주말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했다. 두 지역 모두 상업시설이 밀집한 번화가·유흥가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지도상에서 공공도서관의 위치와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비교해보고 거리상의 차이를 가늠했다. 지도와 관련한 자료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 DB 사업으로 구축된 서울시 유동인구 융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유흥업소 분포도는 서울시 정책지도를 참고하였다. 지도상에 나타난 파란색 지점은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 지점은 지역구의 공공도서관을 나타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지역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유흥업소란 상권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제조업, 유통업, 의류·패션 등을 포함한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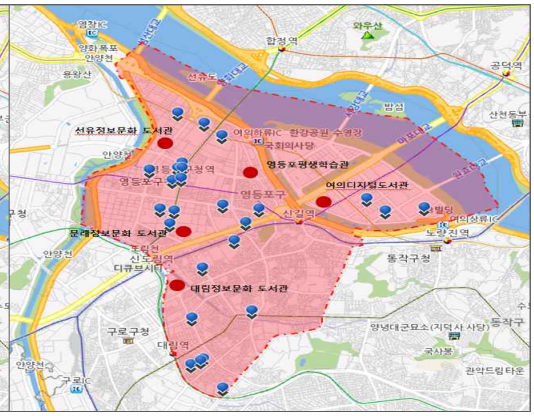
영등포구와 광진구 두 곳 모두 주중과 주말의 유동인구 분포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 주중에는 대규모 금융업종이 모여 있는 여의도 일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에는 여의디지털도서관이 있어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영등포구의 주요 상권이 밀집해있고, 교통 이동 동선이 겹치는 영등포구청역과 문래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았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문래정보문화 도서관, 선유정보문화 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이 인접해 있다. 이는 영등포구의 공공도서관이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돼있고, 교통을 통한 접근성 역시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반면 광진구의 경우 지역구 면적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이 서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광진구의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크게 동서울버스터미널과 건국대학교 부근인데, 구의제3동 도서관은 동서울버스터미널과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자양제4동 도서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건국대학교와 다소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시의 2013년 기준으로 691,478개의 사업체에 2,877,548명이 종사하고 산업 구조이다.



[그림 1] 영등포구 주중 유동인구와 공공도서관 위치



[그림 2] 영등포구 주말 유동인구와 공공도서관 위치

[그림 3] 광진구 주중 유동인구와 공공도서관 위치

[그림 4] 광진구 주말 유동인구와 공공도서관 위치

[그림 5] 영등포구 유흥업소 분포도

[그림 6] 광진구 유흥업소 분포도

Ⅳ. 분석 결과 및 해외사례

1. 유동인구와 공간적 접근성의 상관관계

영등포구와 광진구 두 곳 모두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과 유흥시설 밀집지역이 유사한 위치임을 확인했다. 즉, 유흥시설 밀집지역이 곧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이란 의미이고 사람들의 이동 동선 역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복되게 된다. 영등포구의 주중 유동인구는 여의도 일대가 높았고 문래역과 영등포구청역 주변 지역은 주중, 주말 모두 유동인구가 많았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려 4개의 공공도서관이 위치해 지역 이용자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했다. 반면 광진구의 경우는 지역구 공공도서관 위치의 간격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구의제3동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도서관의 위치는 모두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광진구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낮게 평가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영등포구와 광진구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접근성의 정도가 두 지역구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보았다. 이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8〉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회원등록자 수 및 이용자 수

(단위: 일/시간/명)

지역	도서관명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회원등록자 수 및 이용자 수				
				회원 등록자 수			이용자 수	
		개관일 수	주당 평균 개관시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도서관 방문자 수	자료실 이용자 수
영등포구	대림정보문화 도서관	289	90	2,983	4,622	32,264	426,657	284,438
	문래정보문화 도서관	287	60	2,952	3,751	35,096	439,758	293,172
	선유정보문화 도서관	289	90	1,852	2,076	17,782	234,458	183,001

지역	도서관명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회원등록자 수 및 이용자 수				
		개관일 수	주당 평균 개관시간	회원 등록자 수			이용자 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도서관 방문자 수	자료실 이용자 수
영등포구	여의디지털 도서관	288	60	15	141	7,718	18,0697	76,527
	영등포 평생학습관	325	75	10,504	13,770	134,125	1,992,099	1,555,838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	320	71	10,001	12,396	96,298	1,471,470	1,404,585
	구의제3동도서관	325	65	1,171	130	2,772	129,694	129,135
	자양제4동도서관	324	65	2,745	677	7,493	127,248	122,616
	중곡문화체육 센터도서관	323	75	4,290	2,097	13,508	475,307	469,755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광진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체로 고른 이용자 수를 보였고, 영등포구에서 가장 적은 이용자 수를 보인 여의디지털도서관은 18,0697명으로 광진구의 구의제3동 도서관과 자양제4동 도서관 이용자 수보다 많았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진구의 구의제3동 도서관과 광진정보도서관이다. 구의제3동 도서관의 경우 동서울버스터미널에 인접한 도서관이긴 하지만 이용자 수가 낮다.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약 500m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 동서울버스터미널은 항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터미널의 유동인구는 그 지역을 특수한 목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동인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임에도 근방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많지 않았다. 한편, 광진정보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다. 이는 광나루역에서 약 8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서관 바로 앞을 지나는 아차산로가 접근성을 높여준 것이 주요했다. 무엇보다 주민 참여 재능기부 활성화와 무한 상상실 운영, 300여 개의 무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세계일보 2014).

2. 접근성을 제고시킨 해외사례

접근성을 제고시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증진 시킨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시애틀과 영국 런던,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많은 이용자수를 확보하고 도서관 활성화에도 기여한 경우에 속한다. 시애틀 '라이브러리 커넥션'은 시애틀 킹 카운티 사우스센터 몰(South center mall) 이라는 종합쇼핑센터 1층에 있다. 킹 카운티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사서 공무원이 근무한다. 일반 공공도서관과 이용 방법은 같다. 영리 기관인 종합쇼핑공간 안에 비영리기관인 공공도서관이 들어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킹 카운티 지역에 총 세 곳이 있다. ①Lake Forest Park Library Connection, ②Library Connection at South center, ③Library Connection at Crossroads 등이 해당한다(라이브러리커넥션 2016).

영국 런던 타워 햄릿 자치구에는 '아이디어 스토어'라는 이름의 공공도서관이 있다(아이디어스토어 2016). 아이디어 스토어는 지역의 중심 상업지구 또는 이용도가 높은 슈퍼마켓 인근에 위치해 있다. 기존 도서관 이용자를 포함해,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던 지역주민들도 동네 슈퍼마켓을 가듯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을 일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1998년 타워 햄릿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렴된 결과를 공공도서관에 접목시켰다. 주민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 ▲쇼핑 공간과 근접한 곳에 위치 ▲예술작품 전시 및 비디오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이다. 런던 타워 햄릿 자치구의 아이디어 스토어는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변화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임을 확인시켜 준다.

일본 도쿄 록본기힐즈는 도쿄 중심부인 마루노치 지구와 시부야 지구 중간 지점에 있다. 다양한 도시복합용도의 도입과 문화시설의 집중적인 유치를 통해 21세기형 도심 상업지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 내부에 위치한 모리타워 49층에는 도서관이 있다.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유료 회원제 도서관이다(록본기힐즈 2016). 이 지역은 평일 유동인구가 12만 명이고 주말에는 18만 명에 이르는 지역이다(전북일보

2009).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문화공간으로써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열린 공간계획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기능의 복합화라는 효과를 유도해냈다.

V. 결 론

공공도서관의 이용증진 활성화 방안을 유동인구 DB를 활용해 접근해 보았다. 현재 서울시의 도서관 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포함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접근성에 있다. 따라서 유동인구와 상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비교해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인 영등포구의 공공도서관과 접근성이 낮은 광진구의 공공도서관을 각각 해당 지역구의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대조했다. 그 결과 영등포구는 공공도서관 간의 간격이 일정하고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근접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광진구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간의 간격이 컸고 하나의 도서관이 비대칭적으로 큰 모습을 보이며 그 외 도서관들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 시애틀과 영국 런던, 일본 도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있다. 특히 선진적인 도서관이라 평가받는 영국의 아이디어 스토어는 설립 당시 접근성에 기초해 탄력적인 도서관 운영 방식을 도입했고, 미국 시애틀 킹 카운티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쇼핑센터와 같은 영리 기관 안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게 됐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미시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따라서 향후 좀 더 정밀한 접근방식과 분석 도구를 이용해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유동인구와 사람들의 이동 동선에 기초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여 활발한 독서활동에 기여하는

스토어 형식의 공공도서관이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김영엽, 여관현, 2014. 공간의 국지적 탐색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입지평가 및 최적입지 선정: 서울시를 사례로. 『주거환경』, 12(4): 55-71.

김현중, 이종길, 여관현, 2015.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와 결정요인. 『서울도시연구』, 16(4): 109-127.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_____, 2013. 『201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박성재, 이지연, 2005. 계층분석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2(1): 65-85.

손정렬, 오수경, 2007. 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76-594.

전보애, 2014. 지역규모에서 공공도서관의 공간접근성 분석: 강원도를 사례로. 『한국지도학회지』, 14(1): 93-105.

허준영, 김용승, 2015.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공공도서관-런던 타워햄릿 자치구 아이디어 스토어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5(2): 1-2.

Adkins, D. and Sturges, D. K., 2004. "Library Service Planning with GIS and Census Data." *Public Libraries*, 43(3): 165-170.

Talen, E., 2003. "Neighborhoods as Servicce Providers: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Pedestrian Access." *Environment and Planning B*, 30(2): 181-200.

▌참고사이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6. [online] 〈http://www.libsta.go.kr/libportal/main/main.do〉
도서관정보나루. 2016. [online] 〈http://data4library.kr〉
라이브러리커넥션. 2016. [online] 〈http://blog.naver.com/tothetop11/220571693988〉
록본기힐즈. 2016. [online] 〈http://blog.naver.com/hisaa/220422871603〉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16. [online] 〈http://data.seoul.go.kr〉
서울시 유동인구 융복합정보 서비스. 2016. [online] 〈http://115.84.164.178/seoulmap〉
서울정책지도. 2016. [online] 〈http://gis.seoul.go.kr/index_gpin.js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 [online] 〈http://sg.sbiz.or.kr/main.sg#/main〉
아이디어스토어. 2016. [online] 〈http://theseekers.asia/m/52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online] 〈https://www.data.go.kr〉
King County Library System. 2016. [online] 〈http://kcls.org/〉

▌참고기사

대형서점 변신에 독자는 ‘웃고’ 출판사 ‘울고’. 2016. 『이데일리』, 4월 19일 .
‘우수도서관’ 대통령상에 광진정보도서관. 2014. 『세계일보』, 10월 28일.
[일본의 도시가 죽지 않은 이유] ③록본기힐즈와 미드타운. 2009. 『전북일보』, 6월 8일.
상점 같은 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 런던 빈민가를 바꾸다. 2015. 『한국일보』, 10월 20일.

2016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2016년 11월 28 일 인쇄
2016년 11월 28 일 발행

발행인 임 원 선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 화 (02)590-0500
팩 스 (02)590-0530
인 쇄 (주)계문사 (Tel. 02-725-5216)

ISBN 979-11-5687-316-7 93020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6028120)